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

시민들은 ‘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가?

-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사례연구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노 하 은

시민들은 ‘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가?

-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사례연구 -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노 하 은

노하은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_____ 이 동 수 (인)

부위원장 _____ 장 미 정 (인)

위 원 _____ 윤 순 진 (인)

국문초록

2018년 4월 1일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했다. 부실한 재활용 시장구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거대한 국내 쓰레기 배출량이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기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 전반에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으며 정부와 기업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편의성을 무기로 깊숙이 자리 잡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 침해와 책임전가 논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유인책 없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라 스스로를 명명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시민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철저한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생활수준의 실천을 넘어서 온라인을 통해 언론사와 정부에 폐기물 문제 각성을 위한 청원을 제안하고,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연관 사업을 개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구자는 ‘쓰레기 수거대란’을 기점으로 시민 중 일부가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라는 생태시민의 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가정한다.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쓰레기 대란의 근본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의 절대적 감축이 필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추후 일반 시민의 정책 수용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나 실천행위를 전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주요 계기를 탐색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의 질문은 “국내 폐기물 문제 해결

을 위해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왜’ 등장했는가?”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없기에 현상에 대한 탐색적 의의를 가진다. 이에 사례의 일반적 통계학적 특성이 아닌 개인의 특성과 계기에 집중하고자 질적연구 방법론 중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자료수집 방법은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으로 구성된다.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생태 시민성, 환경 책임성 행동 모형, 온라인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를 탐색했고, 구성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한 2018년 이후이며, 공간적 범위는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2곳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 ‘쓰레기 수거대란’의 발생경위와 이후 촉발된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탐색한다. 환경 책임성 행동 모형에서 제시되는 행동 형태 6가지 중 시민 행동, 교육 행동, 경제 행동, 신체 행동을 기준으로 활동을 분류했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가 스스로가 정의하는 제로웨이스트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외부적 통제와 유인책 없이 내부적 동기로 폐기물 저감 행동을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실천 계기를 문제의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로 구분 지어 분석했다. 인식단계는 폐기물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인 제로웨이스트 인식으로 나누어진다. 각 과정은 일 방향적이지 아니며 인식이 실천에 실천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보완적이다. 대표적인 계기로 덕성, 통제 가능한 시간과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적 인정이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비실천 시민의 실천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의 교육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산업계와 청소년 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폐기물 문제를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최초로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환경운

동의 주체는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였으나 제로웨이스트는 사회경제적으로 환경과 연결점이 적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환경운동의 실생활 화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최초의 국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의 계기에 관한 분석연구로써 탐색적 의의가 있지만 선행연구 부재로 인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 때,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대표성을 띄는 인물들이나 전체 구성원 중 극히 일부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어 : 제로웨이스트, 폐기물 저감 운동, 생태시민, 시민참여, 사례 연구, 환경 책임성 행동 모형

학 번 : 2018-2149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	3
제 3 절 연구방법	5
 제 2 장 논의의 배경과 분석틀	15
제 1 절 이론적 배경 검토	15
제 2 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23
 제 3 장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개요	26
제 1 절 폐기물 인식의 기점 ‘쓰레기 수거대란’	25
제 2 절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어디에 있는가?	40
제 3 절 제로웨이스트 실천	47
제 4 절 제로웨이스트의 의미	59
 제 4 장 시민들의 제로웨이스트 실천계기	65
제 1 절 실천 이전의 삶	66
제 2 절 인식의 계기	70
제 3 절 참여의 계기	78
제 4 절 유지와 강화의 계기	81
제 5 절 소결	88
 제 5 장 결론	91

참고문헌	95
Abstract	102

표 목 차

<표 1> 국내 대표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8
<표 2>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	11
<표 3> 연구 참여자 목록	12
<표 4>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홍보된 ‘청와대 국민청원’ 중 일부	49
<표 5> ‘쓰레기 수거 대란’이후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관련 다큐멘터리	75
<표 6> 각 키워드별 언론사 연간 언급량	76

그 립 목 차

[그림 1] ‘쓰레기 수거 대란’당시 아파트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 거부 안내문	1
[그림 2] 연구 흐름도	14
[그림 3] Hines와 Hungerford(1987)가 제시하는 환경 책임성 행동 모델	21
[그림 4] 분석의 틀	25
[그림 5] 홍수열(2018) “쓰레기 대란 사태의 원인 및 국내 재활용 체계의 문제점” 재구성	27
[그림 6]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표지	43
[그림 7] 친환경 제품 추천을 부탁하는 대화	44
[그림 8] 일상 속 실천 사례 공유	44

[그림 9]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에서 제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체크리스트	45
[그림 10]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 게시판 종류	46
[그림 11] 개인의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소프넷으로 머리감기 실천사례 공유	48
[그림 12] KBS 시청자 청원 ‘일회용품 방송 노출 자제’	51
[그림 13]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홍보물	52
[그림 14] 컵보증금제 부활 48시간 온라인액션 홍보물	53
[그림 15] 플로깅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플로깅 후기를 공유하는 글	57
[그림 16]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빨대가 꽃힌 바다거북’의 모습	74
[그림 17] 분석 결과 정리	9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2018년 4월 대한민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했다.¹⁾ 아파트 단지와 분리배출 계약을 체결한 민간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은 불편과 혼란을 경험했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말 민간 재활용 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동시에 재활용 업체의 적자를 보조금 지급으로 보완해준다는 대책을 제시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8.04.01.). 그러나 재활용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아닌 보조금 지급 대응책은 불법 투기문제와(김정석, 2019) 불법수출



[그림 1] ‘쓰레기 수거 대란’당시 아파트에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 거부 안내문(송승화, 2018)

문제를 일으켰고(김미경, 2019) 언제든 재발할 여지를 남겼다.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재활용 업계의 재정비와 동시에 배출량 감소를 위한 개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과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저감 특히 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18년 8월 1일 시행된 ‘커피 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2020년 1월 1일 시행된 ‘대형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등의 시행규칙을 통해 개인의 친환경 행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9년 IPSOS의 ‘환경문제에 대한 글로벌 조사’ 결과, 한국인은 응답자의 91%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포장 폐기물이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우려’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82%)을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재활용 불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 행동’에서 재활용 불가 포장재 줄이기 행동으로 일회용품 쇼핑 습관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27.5%로 전 세계 평균(3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중반부터 소수의 제로웨이스트(Zerowaste) 실천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생활방식을 바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개선과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2020년 7월 기준 약 7,000명)를 중심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

1) 일명 쓰레기 대란이라 불리는 페플라스틱 수거대란은 전국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 배출되는 페비닐 및 혼합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일시 중단되거나 중단될 뻔한 사건이다. 직접적 원인으로 2017년 7월 중국의 고형 폐기물 수입 금지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꼽힌다.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플라스틱류의 수입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홍수열, 2018).

체 정책 홍보물을 만들거나 국민청원을 제안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

1. 연구 질문

연구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일반 시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하고, 활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다. 시민들은 같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나 극히 일부의 행동만 변화했다. 변화 이전의 성향, 문제 인식과 행동의 계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보다 많은 시민이 생태시민으로 발전할 방안을 연구하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질문은 “국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왜’ 등장했는가?”이다. 시민의 폐기물 저감 행동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이 등장했다. 이 연구는 국내에 제로웨이스트가 주목받게 된 계기와 실천가들의 참여 과정을 탐색한다.

2. 연구 목적과 의의

먼저 이 연구는 어떤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국내 폐기물 문제 관심도가 증가한 쓰레기수거 대란

이후 시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로 변모했는지 특히 네트워크 사회에서 온라인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는 탐색적 연구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실천하는 ‘일부’와 실천하지 않는 ‘대다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 혹은 ‘틈새’를 줄이기 위해 ‘일부’의 실천계기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시민의 환경 정책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탐구한다. 대다수 한국인은 개인이 환경보전 책임 주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통한 산업체계 전환과 함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민이 폐기물 문제로 대표되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 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정부의 환경 정책 도입 시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산업 분야의 폐기물 저감과 청소년 환경교육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폐기물 저감 연구를 시민 실천가 수준에서 연구한다는 학술적 의의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 문제 해결의 주체로써 시민의 역할과 계기를 분석한다. 기존 폐기물 문제 해결의 주체를 정부와 기업에서 확장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과 달리 의무교육이 끝난 성인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해가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집하는 장소다. 이들의 주요 활동장소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도래할 언택트(Untact) 시대에 전개될 환경보호 활동의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다.

제 3 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 연구(case study)로 진행된다. 질적 연구는 사회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현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자(곽영순, 2014)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해석 주의적, 자연주의적 접근이다(Denzin & Lincoln, 2011). 근대의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계량적 방법으로 ‘기계적 객관성’을 획득하려는 양적 방법론은 연구 객체의 복잡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조항제, 2015) 질적 연구는 연구 주제와 대상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총체적인 발견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이종규, 2006).

사례 연구는 특정한 사례로부터 연구자가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Stake, 2008).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그 사례의 전반적인 측면을, 있는 그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기술 또는 설명하는 방법”(김병섭, 2010)을 의미하며 사례 연구는 결론보다 사례의 과정과 상황적 맥락에 집중하는 연구다(Merriam, 1998). 또한 사례 연구에서 특정 사례(들) 분석을 위해 다양한 정보(관찰, 심층면접, 시청각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를 수집하고, 심층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한다(조흥식 외, 2015). 사례연구에서는 특정 체계(사례)를 연구자의 주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려워 학문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최병선 2006), 탐색할 가치가 있는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후 지식 성장

에 기여한다(김병섭, 2010).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내 폐기물 저감 활동을 적극적인 수행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사회 경제 물리적 현상에서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실천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적 행위까지로 확장해서 활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정체와 행동의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환경 정책 확산과 적응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가 질적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주목받는 국내 제로웨이스트에 실천가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된 적이 없으므로 탐색적 목적을 가진 질적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

둘째, 질적 연구는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계량화할 수 없는 실천가들의 내면적 동기와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환경 행동 동기와 주요 실천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이고 사회경제학적인 개인의 역량 등의 계량화에 관심을 가졌다면(Hines & Hungerford, 1987; 이기춘 외, 1999; 이용기 외, 2010, 유두련, 2012; 박희제 외, 2008; 최현정 외, 2000; 이양수, 2009),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적 계기에 초점을 맞췄다.

셋째, 이 연구는 이론 검증을 위한 연구가 아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행동을 특정 이론에 맞춰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그들의 다층적인 참여계기 분석을 목표로 한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1) 사례 선정과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이 2018년 04월 이후에 수행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는 오프라인에서 제로웨이스트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천가들이 결집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 공간에서 실천가들은 의견의 공유와 협의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성장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속 ‘대화’의 형태와 유사한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활동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활동의 특징, 실천가들의 정체성과 계기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대화들에 집중한다. 또한, 심층면접과정에서 운영진들이 꼽은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의 계기가 된 2018년 4월 1일 폐비닐 대란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의 시작점으로 봄으로써, 일상생활의 균열을 체험한 이후 이러한 제로웨이스트 운동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계기로 행동에 참여했는지 탐색한다. 연구대상이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중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위의 두 개다. 인원수는 네이버 카페가 14배 수준으로 많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현실의 ‘대화’ 형태와 더 유사하다. 구어체 형식의 신속한 의사 교환이 가능하지만, 채팅방 참여 시점 이후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는 댓글 기능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실시간 의사 교환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과거 자료 접근이 쉽다. 활동

의 역사와 생생한 논의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온라인 활동지를 두 곳으로 설정하였다.

<표 1> 국내 대표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구분	온라인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커뮤니티명칭	제로웨이스트 홈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설립일	2018년 6월 5일	2018년 7월 2일
구성원	7,000여명 (2020년 7월)	500명 내외 (2020년 7월)
특징	약한 쌍방향 의사소통 과거 정보 접근 가능	쌍방향 의사소통 입장 이전 정보 접근 불가능
공통점	제로웨이스트 참여 일상 공유 다양한 뉴스기사, 다큐멘터리등의 정보 공유 환경관련 정치참여 독려 등	

3. 자료수집

실제 연구를 진행한 기간은 본 연구에 앞선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하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다. 본 연구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네이버 카페가 개설된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2019년 4월에 입장하여 본 연구 기간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 존재하며 자료를 수집해왔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크게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이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조사와 국내 폐기물 문제와 자원재활용법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조사로 구분된다. 연구의 분석 틀 구성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생태 시민성, 환경 책임성 행동모형 이론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맥락 이해를 위해서 신문 기사, 시청각자료, 통계자료, 법률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 방법은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인류학에서 많이 수행되는 연구방법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들의 현장에서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같은 눈높이로 삶을 관찰하는 것이다 (Bogdan& Biklen, 1982). 연구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행동 특징, 관심사, 세계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 현장에 들어갔다. 카페 가입과 채팅방 입장 수준의 참여관찰을 통해 온라인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2곳에 상주하며 구성원들의 댓글 수, 게시글 조회 수, 공감 수 등의 커뮤니티 지표로 주요 관심사를 파악했다. Spradley(2006)이 주장하는 ‘완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에 위치한다. 연구자는 신분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상황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 관찰을 진행했다.

3) 심층면접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 방법이기도 하

며 자료조사 방법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면접대상자인 구성원이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감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화된 또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schwandt, 1997). 면접조사의 자료는 유연하고 다양할수록 연구 대상에 대한 생각과 의견, 해석, 이해,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통해 순환적으로 발전하는 연구가 되기도 한다(윤택림, 2004). 심층면접법은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구술자가 반드시 주거나 온전한 형태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면접 대상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참여관찰을 함께 진행해 수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자료수집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문헌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관찰은 실천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간접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으로 실천가들이 현대 사회와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구조를 보는 주관적인 시각을 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은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2020년 2월부터 국내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내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발자취와 커뮤니티 내부의 논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이 있는 존재 혹은 커뮤니티 초기부터 활동에 참여하여 꾸준히 정보를 생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실천가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층면접 참가자는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운영진,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자, 오프라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자 등 다

수를 대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다. <표 2>는 이 연구에서 진행한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이다. 반 구조화된 심층면접의 특성상 면접 대상자에 따라 질문 내용과 질문 흐름을 달리 진행했다.

<표 2>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

카테고리	질문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현재 활동 등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로서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웨이스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개인이 추구하는 제로웨이스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스스로를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면서 전과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인식 변화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계기로 제로웨이스트 혹은 폐기물 문제를 알게 됐나요?
참여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계기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시작했나요?
유지 강화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표 3> 은 이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자들의 개략적인 정보다. 2019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총 14명이 참여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1명(N)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14명 모두의 제로웨이스트 시작 시기에는 차이를 보이며 커뮤니티 운영자인 B, C, F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면접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20~30대로 10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여성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표 3> 연구 참여자 목록

코드	성별	연령	직업	일시	선정사유
A	여	30대	전업주부	19/11/23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제로웨이스트 오프라인 샵 운영
B	여	30대	전업주부	19/12/7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부방장
C	여	30대	직장인	19/12/7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방장
D	여	50대	개인사업자	20/2/26	반찬가게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E	여	30대	전업주부	20/3/12	구독자 3.4천명의 제로웨이스트 유튜버
F	여	30대	전업주부	20/3/13	네이버 카페“제로웨이스트 홈” 운영자
G	남	30대	직장인	20/3/21	플러깅(쓰레기 주우면서 달리기) 실천가, 강연 및 인터뷰 경험 다수
H	남	30대	직장인	20/3/23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를 홍보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I	여	30대	개인사업자	20/3/25	망원시장 @알맹 활동 주요멤버, 채식주의자, 식당운영
J	여	30대	전업주부	20/3/26	채식주의자 유튜브 채널운영
K	여	20대	대학생	20/4/3	쓰레기 산 뮤직비디오 제작 등 자원봉사단체 회장
L	남	30대	무직	20/4/8	망원시장 @알맹 활동
M	여	30대	무직	20/4/10	망원시장 @알맹 활동
N	남	30대	개인사업자	20/4/20.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샵 창업자

인터뷰 녹취록은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사본과 기타자료를 수차례 읽으면서 분석 틀을 기준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각 제보자의 분석 내용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드러난 생태 시민성의 특성을 발견한 후, 선행 이론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4.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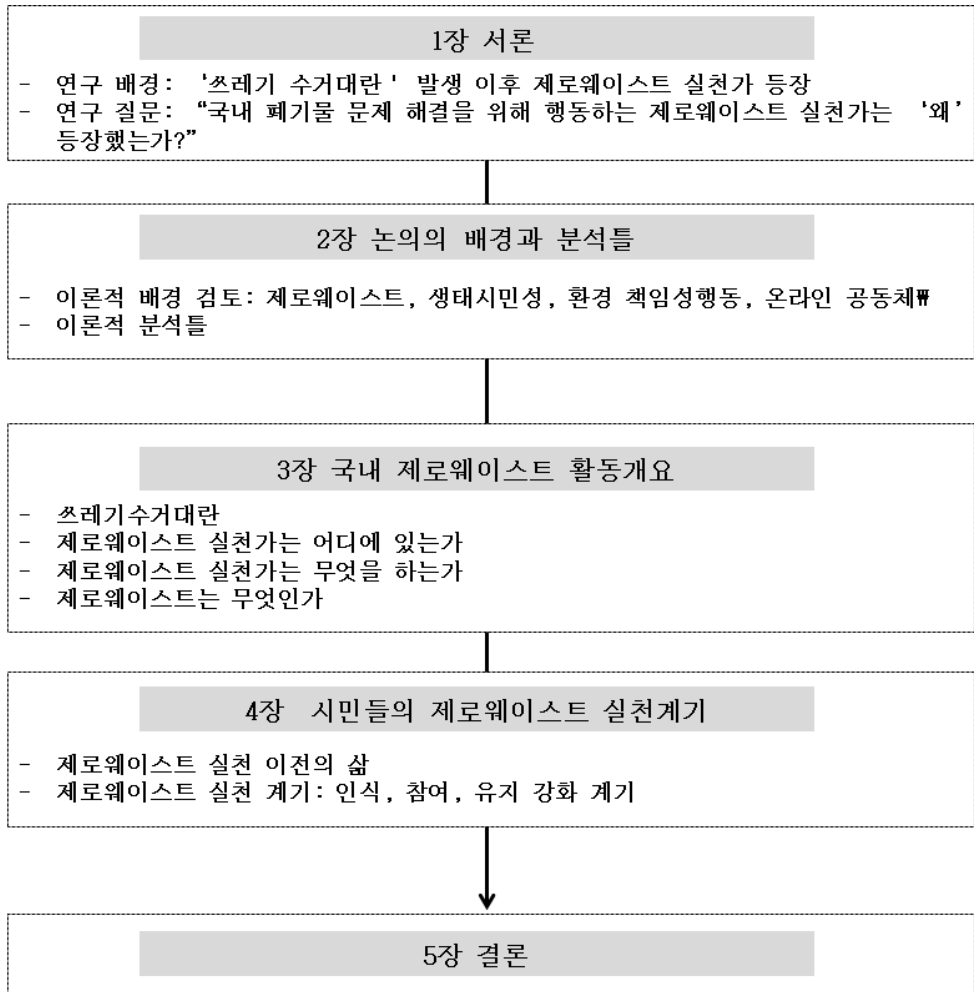
앞서 소개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 질문,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쓰레기 수거대란’ 발생 이후 한국 사회에 등장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의 참여 전 모습과 참여계기를 탐색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분석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제로웨이스트, 생태 시민성, 환경 책임성 행동,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제로웨이스트의 개요를 소개한다. ‘쓰레기 수거대란’의 발생과정과 여파,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위치와 실천방법, 마지막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내용과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전의 삶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과정을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의 단계로 구분 지어 계기를 분석한다.

제5장은 결론 장으로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인 “국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왜’ 등장했는가?”에 대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답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시민 중 변화하지 않은 대다수 시민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2] 연구 흐름도

제 2 장 논의의 배경과 분석틀

제 1 절 이론적 배경 검토

1. 제로웨이스트

이 연구는 제로웨이스트를 일부 시민의 성생태시민성 발현 형태로 다룬다. 제로웨이스트의 핵심인 ‘폐기물(웨이스트)’의 범위는 활동 목적과 개인, 지방, 기업, 정부와 같은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ZWIA, 2020; Song et al., 2015; Hannon & Zaman, 2018).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제로웨이스트의 기준과 정책을 제공하는 Zero Waste International Alliance(ZWIA, 제로 웨이스트 국제 연합)는 2018년에 제로웨이스트를 “모든 제품, 포장재 그리고 원료를 책임지고 태우지 않으며 생산, 소비, 재사용 회수과정에서 모든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이나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을 토지, 물, 그리고 공기로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고휘 폐기물 처리 문제를 연구한 Song(2015)은 “모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 수명주기의 재설계를 장려하는 폐기물 방지에 중점을 둔 일련의 원칙이자 쓰레기 매립지 소각로 등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원칙”으로 정의한다. 이는 제품의 생산과정 개편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환경영향이 적은 처분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Hannon & Zaman(2018)은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시키고 순환적인 도시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촉매제로서 제로웨이스트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는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

지 않는 것"을 넘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여기는 자원순환 사회에 속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짐을 유추할 수 있다.

기존 국내 제로웨이스트 연구는 패션업계의 조형미와 자원 활용분야에 집중되어있었다(국혜승, 2016; 김숙현과 김혜연, 2018; 허진영, 2019; 허가영, 2018). 패션업계의 과소비 문화와 의류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인지하고 사회 윤리적 책임을 염두에 두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중 하나로 여겨졌다(국혜승, 2016). 지속 가능한 디자인 방법으로 조형적 요소를 이용한 직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시도되었다(김숙현과 김혜연, 2018; 김정혜와 김혜연, 2018; 허진영, 2018; 허가영, 2018). 제품의 자원 효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아직 국내에 정착하지 못한 제로웨이스트의 연구범위와 패션 산업 생산자의 관점에서 전개된 연구라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해외 제로웨이스트 연구들은 국내 연구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 분야와 경제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자원순환의 시작 개념으로 여겨진다(Hannon & Zaman, 2018). 문명과 산업혁명은 풍요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폐기물을 축적해왔다(Song etc, 2015). 이런 위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회경제학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재활용 보험과 사전 재활용 방식을 제안하거나(Greyson, 2007), 개인이 아닌 자원순환의 범위가 도시(지역) 수준인 '제로웨이스트 도시'를 목표로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됐다(Song & Li & Zeng, 2015; Zaman & Lehmann, 2013; Zaman & Lehann, 2011; Binnemans & Jones & Blanpain, 2015; Hannon & Zaman, 2018). 해외 연구들은 사회구성원, 정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 도시 형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내보다

빠르게 형성된 제로웨이스트 개념은 국내의 자원 효율화와 폐기물 저감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였다.

제로웨이스트 선행연구의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시민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방법인 분리배출에 관한 연구를 추가로 탐색했다. 분리배출에 관한 연구는 촉진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다(정호규 외, 2018; 김희진 외, 2015; 양진우와 박해식, 2003). 정호규 외(2018)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개인의 분리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연구했다.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분리배출의 효과성(자기효능감)이 환경친화적 행동이 상관관계를 맺는다. 또한, 환경친화적 태도보다는 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인지하게 되는 ‘책임감’과 ‘위기의식’이 더 큰 행동요인으로 작용한다. 김희진 외(2015)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분리배출 저해요인으로 게으름, 불필요, 불호, 비 편의성, 시설부족을 확인했다. 양진우와 박해식(2003)은 분리배출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좋으나 의도와 행동은 주택 유형, 주부의 근무 및 결혼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규범과 환경정보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민 수준에서 참여하는 폐기물 저감, 배출, 활용 행위와 더불어 시민의 역량이 발현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이 연구는 ‘제로웨이스트’ ‘활동 자체가 아닌 ‘제로웨이스트 행위’에 참여하는 ‘실천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국내에서 아직 낯선 제로웨이스트 개념에 생태 시민성 영역을 차용함에 따라 생태시민으로서 가지는 시민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생태시민성

개인이 전 세계로 상호 연결되는 현대는 수많은 사회 생태적 문제로 둘러싸였다(김병연, 2011). 근래 대부분 환경문제는 자본주의의 산물이자(박순열, 2010) 자본주의 사회가 위험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지리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복수의 가해자들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Beck, 1992). 이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심층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해야 한다(김희경, 2018). 또한, 기존 시민성과 다르게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이 필요하다(박순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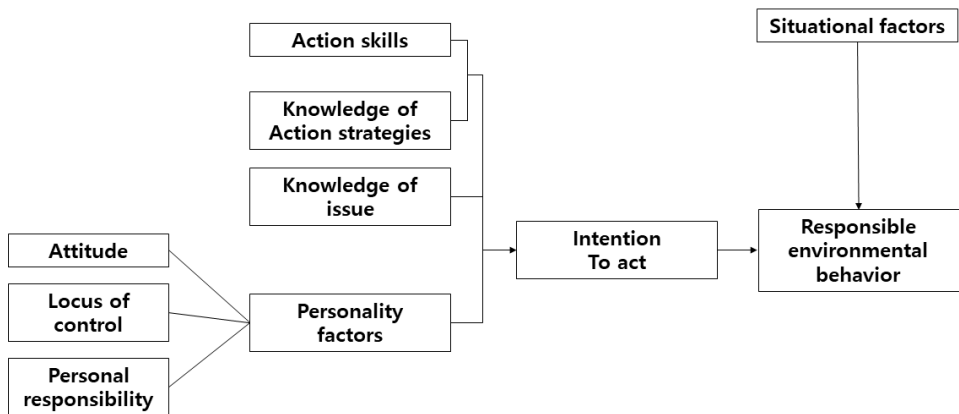
생태 시민성 연구의 대가인 Andrew Dobson은 그의 저서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2003)에서 생태 시민성의 정의와 특성을 제시한다. 생태 시민성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시민 공화주의적 시민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등장한 시민성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의 자유주의적 시민성과 시민공화주의적 시민성에 존재하는 합리적 개인들은 사회가 합의한 계약을 바탕으로 권리(right), 권한(entitlement)이나 의무(duties)와 책임(responsibilities)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정치는 공적 영역에 국한되고, 개인(시민)들은 어떠한 덕성도 요구받지 않고 배타적 영토성에 기반을 두어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박순열, 2010). Dobson(2003)은 기존 시민성의 자산의 세계에서 벗어난 생태시민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생태적 비영토성(비 영역성): 현대의 환경문제가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는 것처럼 생태 시민성의 범위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 개인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의 지리적 한계를 두지 않는다. 둘째, 비상호적이고 비대칭적인 의무와 책임의 강조: 세대 내

에서는 역사적으로 책임이 큰 자가, 세대 간에서는 현세대가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셋째, 정의, 동정, 배려, 연민 등의 덕성 강조: 금전적 혹은 지위에 따른 편익의 추구나 처벌의 회피가 목적이 아닌 옳은 일의 수행이다. 넷째, 사적 영역에 대한 강조: 사적 영역의 개인행동이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생태 시민성의 형성과정과 형성 계기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박종문과 윤순진(2016)은 생태 시민성의 하나인 에너지 시민성으로 서울시 성대골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에너지 시민성의 분석기준으로 참여 정도, 시민성 형성 경로, 시민성 형성 결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용했다. 박순열(2010)은 생태시티즌십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녹색 시민을 평가하였다. 조미성(2016)은 생태 시민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정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태 시민성의 분석기준은 참여 동기와 변화과정(시작과 참여 동기, 변화, 혹은 성장), 실제 사례로 본 생태 시민성(사회적 관점, 학습적 관점)이었다. 김희경(2015)는 생태시민의 개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생태시민의 특성과 동인을 분석했다. 첫째, 사회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실천한다. 둘째, 가치관의 실천을 공동체로 확장한다. 셋째, 다른 존재와의 연결이 참여계기가 된다. 이런 한국형 생태시민들은 인간관계와 재미라는 요인으로 참여하며 옳은 것을 추구하는 ‘덕성’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실천’적인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심도 있는 현장연구를 통한 한국인의 생태 시민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김희경(2018)은 활동가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생태 시민성의 특징 분석기준으로 정의감과 책임감, 실천력,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즐거움과 만족을 활용했다.

2. 환경 책임성 행동

환경 책임성 행동은 환경과피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환경보호 행동이다(오해섭, 1998). Hines와 Hungerford(1987)는 환경책임감 증진과 행동 유도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림 3]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3] Hines와 Hungerford(1987)가 제시하는 환경 책임성 행동 모델

연구에 따르면, 환경 책임성 행동은 행동 동기(Intention to act)와 상황적 요소(Situational factors)와 유의적 관계가 있다. 행동 동기는 행동 기술(Action skills), 행동 전략 정보(Knowledge of Action strategies), 문제에 대한 정보(Knowledge of issues), 개인 요소(Personality factors)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 요소는 태도(Attitude),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책임감(Personal responsibility)으로 구성된다. 태도는 환경과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로 나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행동에 양(+)적 영향력을 미친다. 통제소재는 개인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통제력의 기인에 대한 개념이다. 개인 내부에 있다고 믿는 내부소재와 외부의 운명론적인 상황에 기대는 외부통제로 구분된다. 통제력이 내부에 있다고 믿는 개인들은 외부 소재보다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개인 책임감은 환경 전반 혹은 환경 일부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책임감을 크게 느낄수록 행동과 양(+)적 관계가 존재한다.

Hines와 Hungerford가 주장하는 환경 책임성 행동을 Smith(1995: 15-16)가 여섯 개의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 시민 행동(Civic action): 정치적 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촉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통화 교환이나 설득 전략과는 무관한 행동. 둘째, 교육 행동(Educational action): 환경문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 셋째, 경제 행동(Financial action): 환경보호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금전적 행동(예시: 친환경 소비, 투자, 기부 등). 넷째, 법적 행동(Legal action): 환경법 집행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법적 행동. 즉,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된 어떤 환경적인 행동에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행동. 다섯째, 신체 행동(Physical action):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운동(physical)(예시: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프로젝트 참여 등). 여섯째, 설득 행동(Persuasive action): 타인(개인, 공동체, 기업, 정부 등)의 환경보호 행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행하는 비금전적 행동.

4.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과 SNS의 발달은 편리한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했으며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의경공유가 수월해짐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공

동체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김해원 외, 2018; 이길호, 2014; 송경재, 2009). 이길호(2014)는 국내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온라인 민속지학 방법론으로 참여 관찰과 실천가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내부의 권력관계와 생태지형을 분석했다. 송경재(2009)는 ‘2008 촛불집회’라는 시민운동이 촉발된 온라인 활동을 탐구하고 단계별로 시민운동을 분석했다. 온라인 매체의 여론 형성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온라인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됐다. 기존 연구들은 온라인 공간을 미경험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연대와 협력의 공간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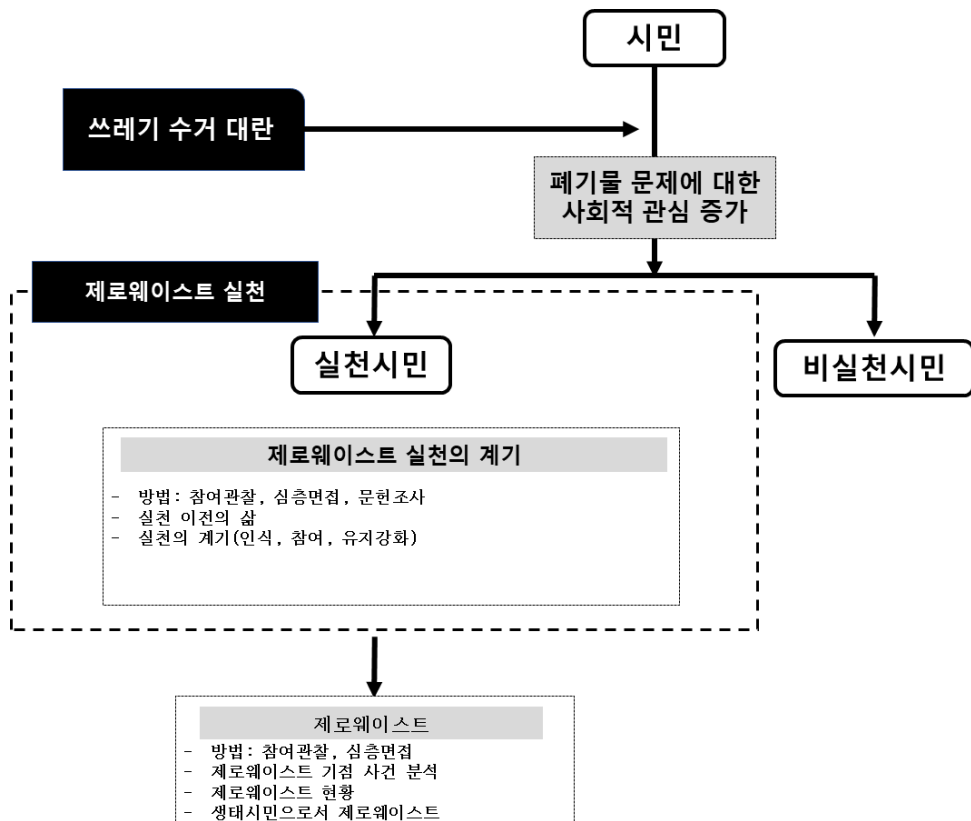
온라인 매체의 중심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하는데 이정권 외(2015)는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추구, 재미, 오락, 이데올로기 추구를 손꼽았다. 이는 기존 미디어의 일방향적인 참여 동기가 아닌 공유, 참여 그리고 협력의 내적 동기들이다. 이 중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용자들이 구체적 논의를 통한 결론 도출보다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동질감 확보를 위함이다. 노영(2015)은 자기표현, 관계 형성, 사회교류, 정보성 그리고 유희성 요인들이 개인의 SNS 몰입과 이용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SNS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정체성의 표현, 사회적 관계 형성, 정보수집, 유희성, 가치관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변화하는 ‘일부’와 변화하지 않는 ‘대다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 혹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일부’의 실천계기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기존에 ‘누구’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활동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제로웨이스트, 생태 시민성, 환경 책임성 행동에 대해 살펴봤다. 시민들은 폐기물 문제를 ‘쓰레기 수거대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시민성을 확보하는 자격을 가진다. Dobson(2006)은 시민성 발현에 있어 ‘자격’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생태 시민성은 ‘실천’을 통해서만 발현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자격’을 가진 시민 중 아주 일부만이 ‘실천’을 통해 생태 시민성을 형성하다. 국내에서 제로웨이스트 연구는 의류산업의 자원 효율성과 폐자원 순환 부분에 집중되어 시민들의 활동은 분리수거 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점을 미루어 이 연구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에 대한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시민들이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쓰레기 수거대란’의 발생경위와 사회에 미친 충격을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쓰레기 수거대란’의 내부적 외부적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상상하고 정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게 됐는지 탐색한다. 또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수집한 정보를 선행연구 중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Hungerford의 환경 책임성 모형을 바탕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그들의 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생태시민의 한 형태로 가정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실천 이전의 삶에서 개인이 가지는 특성,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의 계기를 분석한다. Hines와 Hungerford(1987)가 제안하는 환경 책임성 행동 모델과 dobsons(2003)의 생태 시민성, 국내 폐기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분석의 틀은 [그림 4]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국내 제로이스트 실천가들이 Dobson(2003)이 제시하는 생태 시민성의 조건 4가지(비영토성, 비호혜성, 사적영역, 덕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그림 4] 분석의 틀

제 3 장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개요

이 장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탐색한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에서 많은 실천가가 2018년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대란’이 폐기물 문제 인식의 기점이 됐다고 응답했다. ‘쓰레기 수거대란’의 발생과정과 그 이후 여파를 기술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분석한다.

제 1 절 폐기물 인식의 기점 ‘쓰레기 수거대란’

이 절에서는 국내 제로웨이스트가 활성화되는 기점인 ‘쓰레기 수거대란’이 어떻게 자원순환과 쓰레기(특히 플라스틱) 문제가 사회에 인식시켰는지 기술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했다²⁾.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2018년 4월 1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에 거뒀오던 폐비닐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4월 1일부터 폐비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아파트 거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4월 2일 환경부의 긴급조치로 수도권 48개 업체에 정상수거를 요청했고 새로운 분리수거 방식을 공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거 업체와 협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발표된 환경부의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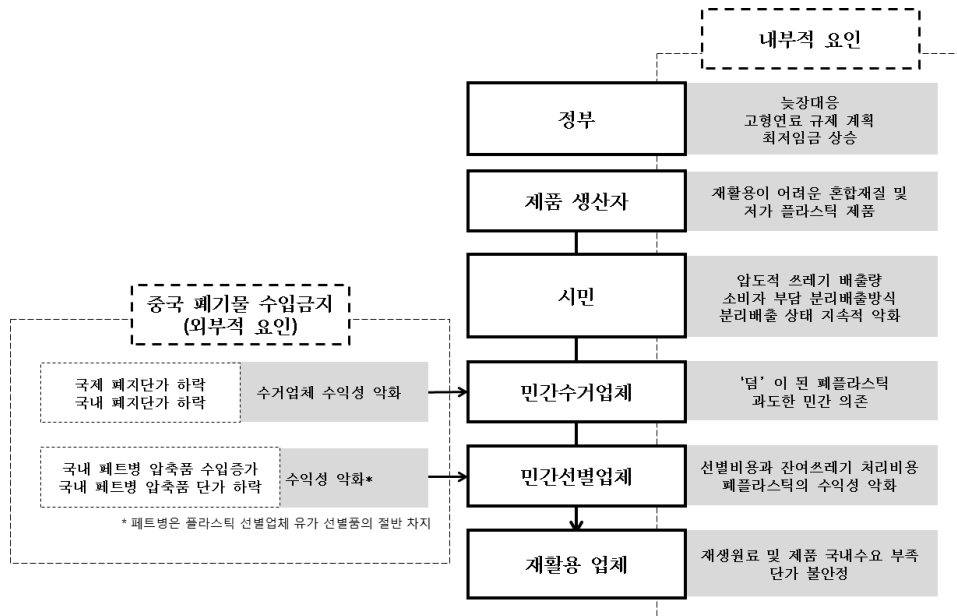
2) ‘쓰레기 대란’,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재활용 수거 업체가 폐비닐 및 혼합 플라스틱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여 수거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 수거대란’이라고 부른다.

로는 시민들과 수거 업체 간의 혼란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이후 환경부는 폐비닐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폐지 선매입을 통해 재활용 업체의 수익을 보장하여 사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환경부는 향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여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하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³⁾

시민들은 약 1달간 언론의 도배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단지와 가정에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실제로 목격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각인됐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태는 진정됐으나 여전히 재활용업체의 수익악화와 환경부의 처리비용 지원 방식으로 인해 언제든 새로운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절에서 제시하는 ‘쓰레기 수거대란’의 내외부적 요인은 2018년 발간된 홍수열의 “쓰레기 대란 사태의 원인 및 국내 재활용 체계의 문제점”의 흐름을 따라간다.

3) 잔여쓰레기(잔여폐기물)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후 선별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탈락되는 쓰레기를 의미한다. ‘잔여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돼 민간 소각시설에서 t당 20만~25만원을 들여 소각됐다. 이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소각비용은 t당 4~5만원 수준이다.



[그림 5] 홍수열(2018) “쓰레기 대란 사태의 원인 및 국내 재활용 체계의 문제점” 재구성

1. 내부적 요인

1) 거대한 국내 쓰레기 배출현황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2019)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일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2013년 380,709톤에서 2018년 430,713톤으로 5년 사이에 13%가량 폐기물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전 세

계 1위이며, 2019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7.4kg으로 나타났다.

2) 부실한 국내 재활용 비율

국내 폐기물은 ‘발생-분리수거(시민)-수거(업체)-분류-처리(재활용, 소각, 매립)’의 과정을 거친다.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1인당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쓰레기의 83%를 재활용하며, 이중 물질 재활용과 퇴비화는 59%,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24% 그리고 나머지 16%는 매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재활용률(물질과 에너지 모두 포함) 평균 54%를 크게 웃돈다. 이렇게만 본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폐기물 재활용 국가다. 하지만 2018년도 재활용률은 87.1%인 반면(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9), 2016년 기준 전국 공공선별장의 재활용품 내 평균 이물질 혼입률은 38.8%다(환경부, 2018).⁴⁾

이를 통해 재활용되지 못하는 자원들이 대부분이며, 높은 재활용 분리수거 비율이 높은 의미가 있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부 통계에서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업체가 시민들이 분리수거 한 폐기물을 수거 후 선별업체에 넘긴 폐기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즉, 분리수거된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쓸 만한 폐기물을 골라내는 ‘선별(분류)’과정에서 약 39%가 경제적 가치가 낮아 탈락한다는 사실이다. 탈락한 폐기물은 잔여 쓰레기로 분류되어 사업장폐기물과 같이

4) 최근 몇 년간 비율에 큰 차이가 없어 다른 연도의 수치를 혼합하여 이용했다.

민간 소각장에서 높은 비용을 들여 처리된다.

3) 만성적자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

페비닐과 폐플라스틱은 발생량이 많고 혼합 재질 제품으로 인해 재활용이 까다로워 재활용 업체에는 처리비용이 판매가격보다 큰 적자상품이다. 발생량이 많아 제품의 평균 단가가 낮고, 추가적 선별비용이 든다. 폐플라스틱의 재이용과 물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폐플라스틱을 선별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재활용품판매 수입은 520억이지만,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은 2,133억이다(이희선, 2018).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수익보다 약 4배가 많다.

4) 민간 재활용 업체의 ‘덤’

적자에도 불구하고 민간 재활용 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제품을 꾸준히 구매한 데는 이유가 존재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4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반드시 재활용폐기물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거둬가야 한다.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연립주택, 단독주택과 다세대와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와 부녀회가 재활용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왔다. 민간업체가 폐기물 처리 부분을 전담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도 기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에 따르면 재활용업체는 2018년 5,972개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아파트는 직접 민간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한다. 민간 업체들은 폐지와 폐의류 수거 수익으로 페비닐과 혼합플라스틱의 적자를

감당했다(홍수열, 2018). 그러나 폐지 가격하락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더는 ‘덤’으로 수거할 수 없게 되면서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5) 환경부의 늦장 대응

2018년 4월 ‘쓰레기 수거대란’과 2018년 1월 중국의 폐기물 수출 금지조치는 중국의 선언으로 2017년 7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17년 10월 폐비닐 수거 대책과 잔여 쓰레기 소각비용 감축 방안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2018년 1월 25일에서야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했고, 2018년 3월 규제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실행되지 않았다.

6) 환경부의 고품연료(SRF) 규제 계획

2017년 9월 환경부는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고품연료(SRF)의 사용을 규제하는 계획을 밝혔다(환경부 보도자료, 2017.09.18.). 고품연료는 폐기물 중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성형한 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고품연료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미비할 경우 사용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환경적 이유로 재활용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2. 외부적 요인

1) 2018년 8월 1일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중국은 자국 내 환경오염을 이유로 2017년 7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선언했다. 조치의 시행으로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방지 목적으로 낮은 등급의 폐플라스틱, 분류가 안 된 폐지 등 재활용 폐기물 24종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 등의 이유로 쓰레기를 수입했고,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739만 톤에 이른다.⁵⁾ 이는 세계 수입량의 약 56%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폐플라스틱을 고가에 매입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⁶⁾

2)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증가

한국환경공단(2018)에 따르면 중국의 조치로 한국의 대중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전년 대비 22,097톤에서 1,774톤으로 약 92%가 감소했다. ⁷⁾ 특히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질)의 PEA파쇄품(플레이크, 스크랩), PVC 수출이 급감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수출되던 폐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수입신고가 간단한 한국이 이어받았다(천권필, 2018). 국내 폐플라스틱보다 해외 폐플라스틱의 질과 재활용 가능 수준이 상대적

5) 이는 세계 수입량의 약 56%다.

6) 중국은 투명 포장캡(에어캡) 1톤 구매를 위해 독일에 400유로를 지급했으며, 이는 독일 재활용업체의 구입액의 2배에 이른다.

7) ‘전년동기대비’의 기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이다.

으로 더 좋으므로 수입이 꾸준히 발생했다(구은서, 2019) 환경부 자료(2018)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14톤에서 1만 1,930톤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수요가 적은 저급 폐플라스틱과 수입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업체 창고에 쌓여갔다.

3) 폐지 가격의 폭락

중국의 조치로 인해 폐지의 경우 51,832톤에서 30,803톤으로 약 40.6%가 감소했다. 특히 골판지 수출량이 25,002톤에서 10,635톤으로 약 57.5% 감소했다. 수출되지 못한 폐지는 세계적으로 과잉현상이 일어나 국제 폐지 가격이 떨어졌으며, 국내 폐지(골판지 기준)가격이 2018년 1월 136원/kg, 2018년 2월 123원/kg, 2018년 3월 90원/kg, 2018년 4월에는 65원/kg으로 급락했다. 처리비용이 큰 유색 페트병의 수출 급감과 폐지 가격 급락은 재활용 업체의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수거 거부와 문제에서 방치의 문제로

2018년 4월 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쓰레기 수거대란’이 마무리되면서 쓰레기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 총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쓰레기 판매처를 모색하는 정책이 아니었던 탓에 ‘쓰레기 수거대란’ 문제는 결국 방치의 문제로 이어졌다.

1) 쓰레기 산

이전부터 쓰레기 산 문제는 존재했으나 ‘쓰레기 수거대란’과 겹쳐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재활용 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함에 따라 많은 재활용 업체들이 폐업했다. 더불어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전국에 246곳이 있으며 연간 190만여 톤을 생산했으나 규제 계획으로 인해 문을 닫은 곳이 속출했다. 폐비닐의 90%를 처리하던 업체들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수출길을 찾지 못해 전국 곳곳에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었다.

이때 불법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업체들이 증가했다.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톤당 10만 원의 처리대금을 받아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탈락하는 잔여 폐기물들의 톤당 소각비용이 20만 원 내외인(류지일, 2018)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다. 환경부는 2018년 기준 국내 14개 시도에서 총 235곳에서 쓰레기 산(불법 폐기물)이 존재하며 경기도에만 약 69만 톤이 폐기된 것으로 파악했다(환경부 보도자료, 2019.02.21.).

2) 불법 쓰레기 수출

2018년 7월 필리핀에 한국 기업이 혼합쓰레기 5,100톤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허술한 폐기물 수출 관리로 인해 재활용 선별 후 남은 잔재 폐기물 등이 폐플라스틱으로 둔갑하여 불법수출된 것이다. 필리핀 현지 환경단체가 한국대사관 앞에서 쓰레기 회수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고 언론을 통해 한국 시민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다. 쓰레기 수출과 수입은 합법이지만 처리비용을 주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위장 수출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그린피스 보도자료,

2018.12.10.). 불법 쓰레기 수출은 느슨한 폐기물 수출규제 문제를 넘어서 개도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4. 다양한 정책의 등장

1)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

‘쓰레기 수거대란’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2018년 5월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상향을 목표로한다. 민간재활용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부문 강화와 동시에 수익성 보장을 위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종합 대책은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제조·생산단계는 2020년까지 음료·생수 페트병을 전량 무색으로 전환하고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 품목을 2022년까지 43개에서 63개까지 확대를 목표로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제품을 차례로 퇴출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35%를 줄이고, 이 중 50%는 재활용하며 비닐봉지 사용량도 35% 저감을 목표로한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알기 쉬운 지침 제공으로 분리배출 개선한다. 폐기물 선별 잔재물 발생률을 2022년까지

38.8%에서 10% 이하로 줄이고 재활용품 공공 선별비율을 29%에서 40%까지 향상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상향하고 물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폐비닐류 물질 재활용 비율을 40%까지 상향한다. 재활용 시장을 감시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재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2018년 5월 24일에는 1회용 컵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하여 재활용 쓰레기 선별과정의 탈락을 줄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또한, 다회용 컵과 텀블러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용을 촉진했다.

2018년 8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커피전문점(식품접객업) 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적발시 동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⁸⁾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예외사항 : 종이컵은 허용, 테이크아웃일 경우 1회용품 사용가능

이후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됐다. 전국 2,000여 곳의 대형할인점을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1만 1천여 곳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고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한다. 이후에도 이중포장과 과대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다양한 시행규칙이 등장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할인점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목표로 포장용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졌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유하영, 2020).

3) 자원순환기본계획

2018년 9월 환경부는 2018년에서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제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로 인한 자원의 고갈,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 형으

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GDP 원 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의 순환이용률을 82%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별 추진과제는 ‘생산’, ‘소비’, ‘관리’, ‘재생’ 네 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소비’ 단계의 세부과제인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는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 하고,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소비 단계에서의 다양한 규제 등장이 기대된다.

5. 소결

‘쓰레기 수거대란’은 재활용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사건이다.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부실한 재활용 쓰레기 수익구조, 압도적인 발생량,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분리수거, 그리고 정부의 적절치 못한 정책들이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기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시민)의 생각하는 방식과 상상하고 정치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폐기물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회의 모습에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등 폐기물 저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일부 시민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생활양식 속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거나 카페에서 다 회용 컵을 사용하는 수준부터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캠페인 운동을 하는 생태시민들이 등장했다. 이 연

구에서는 그들을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라고 부른다. 다음 절에서는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국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의 행동과 의의를 탐색한다.

제 2 절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어디에 있는가?

개인의 삶 속에서 자기만족 수준으로 실천하는 사람부터 더 큰 활동을 위해 온라인에서 함께 활동하기까지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다양한 장소에 존재한다. 연구자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환경 감수성을 가지고 환경 행동을 전개하는 이들은 소수이며 오프라인에서 지정된 공동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환경교육 활동을 제공하지만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활동들이기에 공동체라 불리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적 오프라인 활동을 온라인에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시간 채팅(대화)을 통해 오프라인과 유사한 쌍방향 소통 수준을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2곳을 선정하여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계기를 분석했다.⁹⁾

1. 오프라인, 물리적 실천의 공간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온라인은 의견을 공유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성적이고 여론형성의 기능을 담당한다. 오프라인은 온라인에서 구성원들이 소통하게 되는 현실적 경험의 이루어지는 물리적 실천의 공간이다. Dobson(2003)이 강조한 ‘실천’ 중 물리적 ‘실천’의 영역이다. 구성원들은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상황적 조건과 부합하는 수

9)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환경보호’, ‘제로웨이스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일회용품’, ‘환경오염’, ‘미세먼지’, ‘환경’, ‘에코맘’을 키워드로 일정수준이상의 활동량을 보이는 커뮤니티 155개 중 가장 제로웨이스트와 관련있으며 활동량이 큰 2개 커뮤니티를 선정했다.

준으로 실천한다. 그 예시로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활용하기, 소프트넷으로 빨래하기, nopoo(샴푸 없이) 샤워하기 등을 실천한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서 플러깅에 참여하거나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성원들은 온라인상에서 관계를 맺은 구성원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소모임이 구성되며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오프라인에 형성된다. 구성원들은 이런 실천의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하거나 실천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대부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에 도달하나 오프라인 실천 없이 커뮤니티에 가입한 상태라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라고 부르기 어렵다. Dobson(2003)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천’이 생태시민의 분명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서로 다른 목적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비교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동을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의 실천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결집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2.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행동 구심점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천가들의 지역과 나이 그리고 성별을 초월한 공간이다.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가치 공동체의 일종이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고 ‘행동’에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공통의 목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기도 한다. 커뮤니티에 출입하는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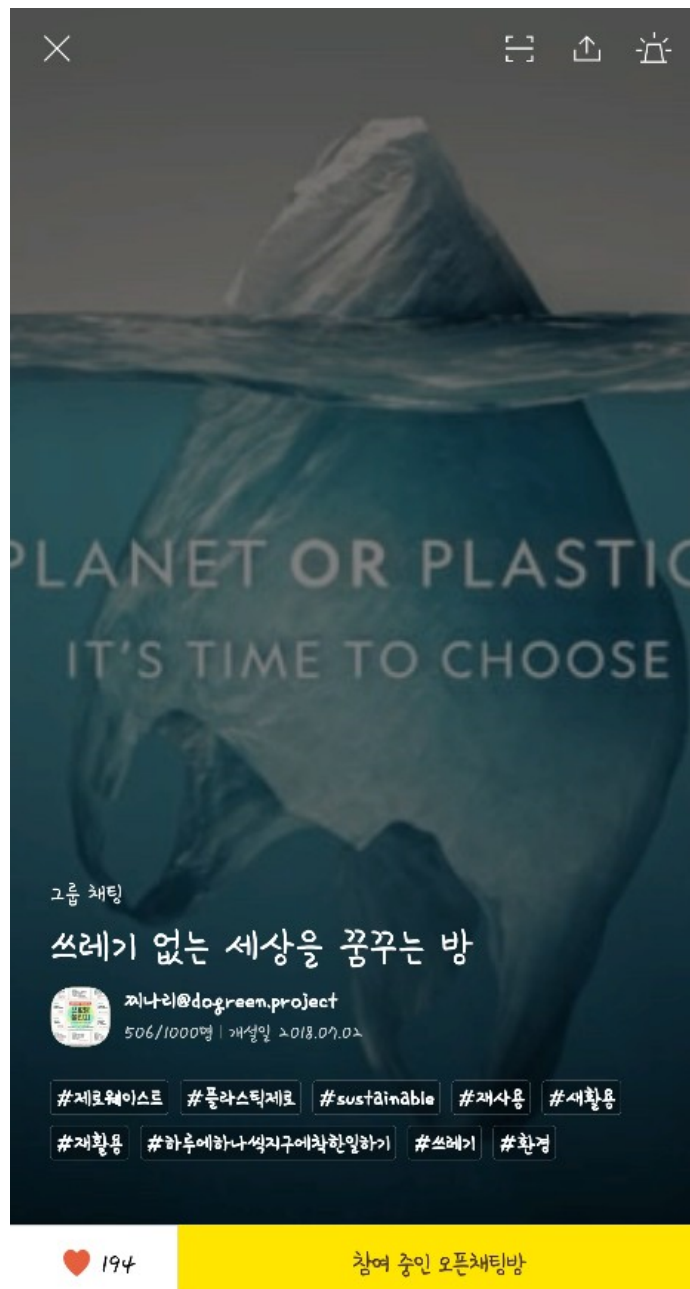
개인은 개인의 선택 하에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직업, 나이 등에 따른)에 구애받지 않은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평등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강력한 의견제시자들이 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됐듯이 온라인 공간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창조 공간이다. 상상력이 닿는 한 무엇이든 가능한 공간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분리배출을 넘어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1)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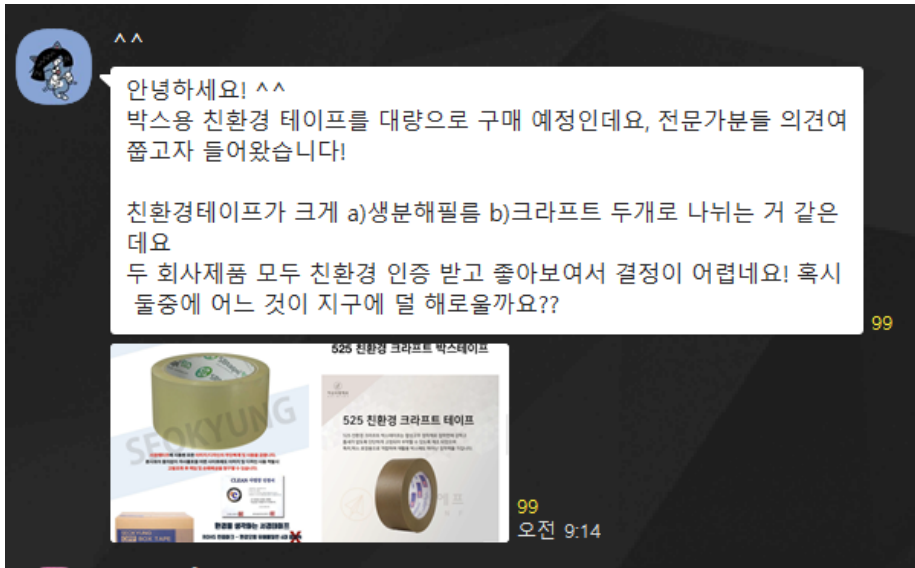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은 2018년 7월 2일 ‘C’가 개설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초기에는 소수의 몇 명과 폐기물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개설했지만,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18년 8월부터 실천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해당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정보 과잉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오픈 채팅방은 500명 내외의 구성원이 1개의 채팅방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누구나 현재 진행되는 주요 논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너무 많은 대화로 인해 피로감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간혹 낯선 대화방식과 특정 행동의 강요 그리고 주제를 벗어난 대화를 하는 경우 커뮤니티 내의 긴장감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태를 해소하거나 방장의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이 채팅방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하여 환경제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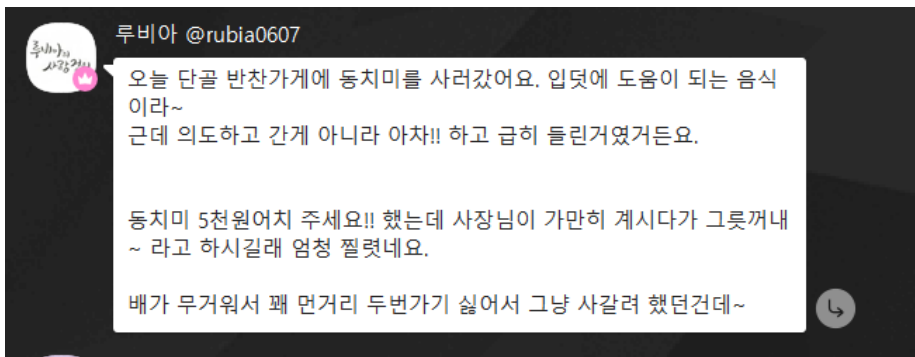
하고([그림 7]), 본인의 일상 속 실천사례를 공유([그림 8])하기도 하며 환경 관련 문학작품의 감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그림 6]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 표지



[그림 7] 친환경 제품 추천을 부탁하는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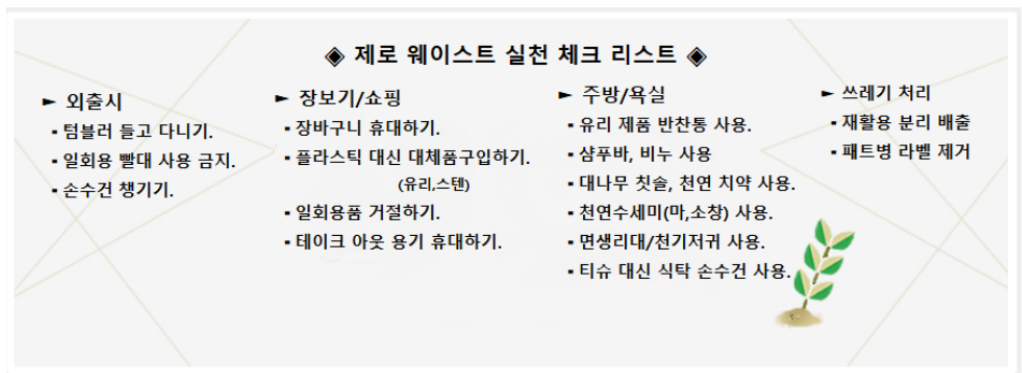


[그림 8] 일상 속 실천 사례 공유

개인수준의 활동 이외에도 빠른 의사소통으로 폐기물 민원이나 국민
청원 참여를 독려하거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방장과 부방장은 ‘빨대는
반납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마트와 시장 무포장 모니터링’ 등과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이한 점은 채팅방에 참여하는 구성원 중에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 구성원이 다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인지도 있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 채팅방에 참여하

는 구성원들 모두의 1순위가 ‘쓰레기’는 아니다. 채식주의인 구성원들은 지속해서 해당 채팅방에 채식주의를 권하고, 동물보호가 우선순위인 구성원들은 동물보호를 권하는 등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다.

2) ‘제로웨이스트 홈’, 네이버 카페



[그림 9]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에서 제시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체크리스트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은 2018년 6월 5일 개설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매니저인 ‘F’의 인터뷰에 따르면 개설 당시 국내에 제로웨이스트 카페가 없어서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정보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했다고 한다. 카페 게시글과 공지사항을 살펴본 결과, 주요 구성원과 실천가들은 주부로 분석된다. 카페에서는 장보기, 집 안 청소, 요리,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비법들이 공유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소소한 실천일기’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다양한 주제로 공유한다. ‘정보나눔’ 게시판에서는 친환경 제품 후기, 환경자료(쓰레기 배출기준, 책, 논문 등), 행사 소개 정보를 공유한

다. ‘행동하는 우리’ 게시판에서는 지역별 소모임을 가지기도 하며 민원, 청원을 신청하거나 참여를 요청한다. 또한, 카페 매니저가 제공하는 ‘이달의 도전’이라는 주제에 맞춰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주제로는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 배달용품 사용안하기’, ‘비닐, 플라스틱 제로식단 만들기’, ‘Speakyourself~! 민원, 청원, 요청하기’, ‘세탁비닐 안받기’, ‘필요없는우편물 수신거부’, ‘증정품 거절하기’, ‘고장난 물건수리, 수선하기’, ‘새제품을 구입하기 전 ’대안소비 ‘생각해보기’, ‘내가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SNS에 알리기’, ‘음료수, 아이스크림 쓰레기줄이기’, ‘여행쓰레기 줄이기’, ‘손수건 사용하기’, ‘방송에 일회용 컵, 빨대가 나오는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 등이 있다.

제휴공지	정보나눔	제로웨이스트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공지 ☐ 가입후필독공지 ☐ 제로웨이스트 자료 ☐ 제휴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TIPS ☐ 대체용품 사용후기 ☐ 플라스틱,환경자료 ^N ☐ 책추천 ☐ 관련 행사, 이벤트, 정책 ^N ☐ 재활용쓰레기배출기준 ☐ 환경,쓰레기뉴스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제품 제보 ☐ 제로가게, 장터제보 ☐ 친환경포장 배송업체 제보 ☐ 제로서비스,마케팅 제보 ☐ 친환경, 제로 먹거리제보 ☐ 과대포장, 플라스틱쓰레기제보
소소한 실천일기	제로후원업체/체험단	판매,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줍기 ☐ 쓰레기 관찰기 ☐ 이 달의 도전! ☐ 오늘의 실천 ^N ☐ 장바구니 공개 ☐ 제로식단 ☐ 제로단상 ☐ 최소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후원업체★★ ☐ 체험단게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제로용품 판매 ☐ 나눔,구함 게시판 ☐ 기부처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인사 ^N ☐ 자유게시판 ^N ☐ 질문게시판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하는 우리 ☐ 민원,청원,요구 ☐ 지역별 소모임, 정모 	

[그림 10]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 게시판 종류

제 3 절 제로웨이스트 실천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주요 활동과 관심사(논쟁거리)를 탐색한다. 체계화된 활동분석을 위해 Hines와 Hugerford(1982)의 환경 책임성 행동 모형 중 Smith(1995: 15-16)가 구분한 환경 행동의 6가지 범주 기준을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적 행동과 설득적 행동이 시민 행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시민 행동, 교육 행동, 경제 행동, 신체 행동 4가지 기준만 활용한다.

1. 제로웨이스트 개인 실천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안을 유연히 접한 참여자들은 개인 삶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 이 중 일부는 소극적으로 개인의 만족을 위해 실천하고 또 다른 일부는 온라인에 실천을 공유하여 타인과 소통하며 공감을 얻는다. 연구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성원들이 직접 공유한 개인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탐색했다. 이들 대부분 가정 내 살림을 책임지는 인물(주부, 원룸 거주자 등)이다. 이는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생활을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천은 가정에서는 소프넛으로 세탁하기, 휴지 대신 소창 세탁해서 사용하기, 비닐봉지 재활용하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그림 12]) 등이다. 타인과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감상과 결과를 온라인에 공유하여 구성원들은 개인 성취를 기록한다. 다른 구성원들은 공감 가는 혹은 의견이 생기는 기록에 피드백(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공

감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실천에 긍정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 가정 외에도 외부에서 텀블러를 사용한 경험, 장바구니를 휴대하면서 본 제로웨이스트 장보기, 다양한 다회용 제품(대나무 칫솔, 실리콘 다회용용기, 꿀랩 등) 사용을 실천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소프넛으로 머리감기



서울하하호호랄랄라 성실멤버 1:1 채팅
2020.06.05. 21:58 조회 257

댓글 30 URL

이번주부터 소프넛으로 머리감고 있는데요.
아직 컨디셔너가 남아서 소프넛쓰고 컨디셔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기엔 괜찮는데 머리가 기름져서
역시 샴푸써야하나 했는데
오늘 컨디셔너 다써서 소프넛만 했더니
세상에 상쾌하고 부들하고 넘 좋아요!!!!

컨디셔너 대신 식초나 구연산 쓰려고 했는데
안해도 될듯요 ㅋㅋㅋ
넘 만족스러워요 ㅋㅋㅋ



서울하하호호랄랄라의 게시글 더보기 >

좋아요 13 댓글 30

공유

댓글 등록순 최신순

댓글알림



화성 밤숨맘
소프넛 머리감기성공하셨군요!! 축하드려요 눈에 들어가면 많이 맵다하니 조심하세요!
2020.06.05. 22:08 답글쓰기

[그림 11] 개인의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안 중 하나인 소프넛으로 머리감기 실천사례 공유(출처: 네이버 제로웨이스트 홈)

2. 제로웨이스트 공동체 실천

1) 시민 행동

(1) 여론 확산의 장치 ‘국민청원’

오늘날 국민 신문고 역할을 하는 ‘국민청원’은 폭발적 여론 형성의 장이다. 국민청원의 편리성과 확산력 덕분인지 커뮤니티가 구성된 이후 다양한 주제로 국민청원이 꾸준히 등장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 및 홍보하여 개인이 체감하는 환경문제 특히 폐기물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려 한다. 국민청원의 주제는 플라스틱 문제부터 원전, 동물보호, 자연경관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커뮤니티에 등장한 청원 요청 중 참여 인원이 100명이 넘는 국민청원들을 <표 8>에 정리했다. 커뮤니티에서 주요한 논쟁이 일어나는 활동들 대부분은 ‘국민청원’에도 등장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내부적 문제의식을 외부로 표출시켜 환경 보호 활동을 촉진하려 함을 알 수 있다.

<표 4>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홍보된 ‘청와대 국민청원’ 중 일부

청원 시작	청원	참여인원
2019-09-27	플라스틱 금지법 제정	1,110명
2018-08-17	낙동강 보를 열어주세요	2,731명
2018-09-06	산과 숲을 밀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대책 전면 취소해주세요.	5,531명
2018-12-19	플라스틱 염색을 금지해주세요.	200명
2019-01-11	미세먼지, 제로 웨이스트, 식품 안전(친환경 유기농?) 등 현재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134명

2019-01-11	세탁시 미세 플라스틱 발생 문제	220명
2018-12-31	플라스틱 사용관련 법제정	253명
2019-06-10	전기요금 내리지 말고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210명
2019-09-23	마트 박스포장이 아니라, 플라스틱 흰색 트레이를 없애주세요.	337명
2019-09-20	한빛 1호기 재가동을 반대하고, 3, 4호기 폐쇄를 청원합니다	2,704명
2019-05-01	과일포장재 팬캡, 비닐랩, 화학수지난좌 사용금지	1,163명
2019-09-30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훼손하는 대형 동물원 건립을 막아주세요.	36,906명
2019-11-06	학교우유급식제도를 폐지해주세요	5,774명
2019-12-30	새해맞이 풍선날리기를 막아주세요	691명
2020-01-29	교과서를 재사용하게 해주세요	253명
2020-01-29	이제는 진부하다고 넘겨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2,015명
2020-04-01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주세요.	1,723명

(2) 일회용품이 없는 방송을 보고 싶은 ‘KBS 시청자 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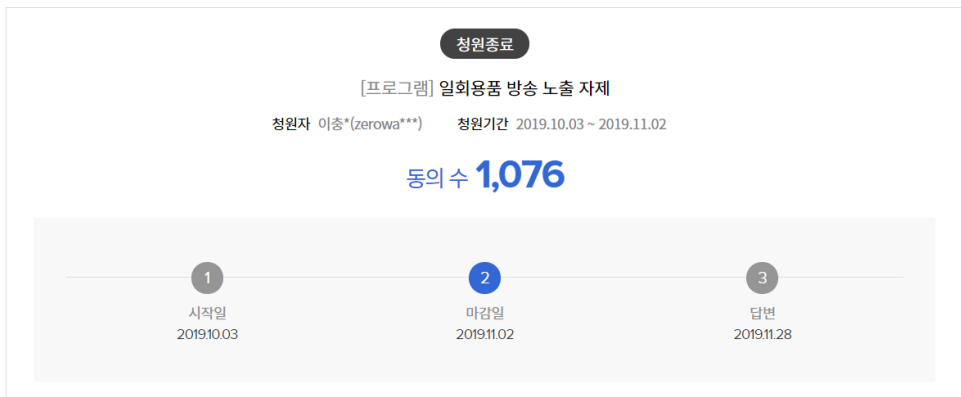
2019년 10월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 홈’의 ‘이달의 도전’인 ‘방송에 일회용 컵, 빨대가 나오는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기’에 맞춰 카페 구성원이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일회용품 방송 노출 자제’ 청원을 신청하여 1,000명을 달성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⑫ 방송은 환경보

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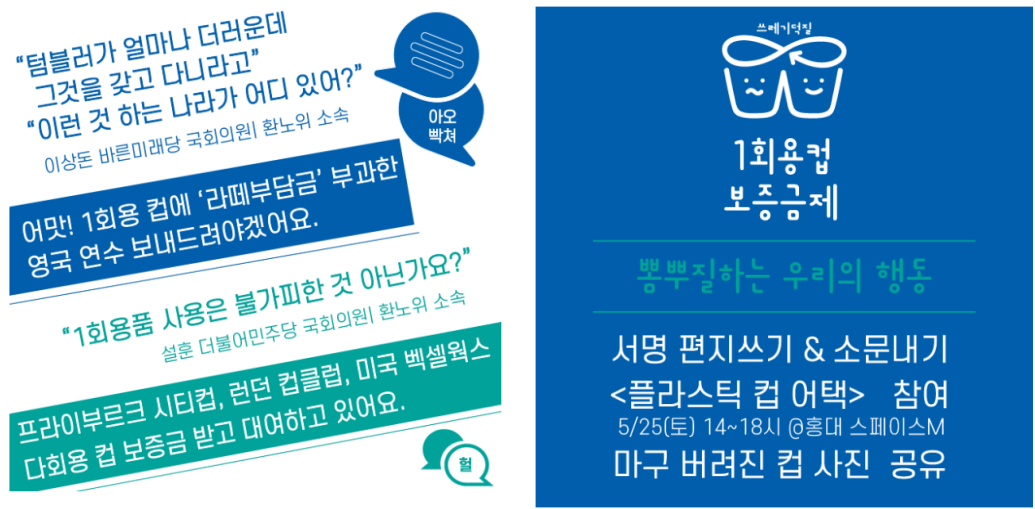
- 1) 배달음식 포장, 일회용컵과 빨대 등 일회용품 노출장면 자제요청.
- 2) PPL 계약 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제한 조항 추가.
- 3) 텀블러와장바구니, 손수건 사용등 생활가운데 쓰레기 줄이는 실천방법 노출 및 소개.
- 4)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자제 캠페인을 위한 공익광고 방송' 송출“

2019년 10월 3일 청원을 시작으로 약 1달간 진행되는 청원 기간 마지막 날에 극적으로 기준인 1,000명을 달성하여 2019년 11월 28일 답변을 받았다. KBS는 환경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청원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 보호 취지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환경 문제를 알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성원들은 일반 국민청원보다 복잡한 청원 방식을 가진 KBS 청원을 극적으로 성공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는 활동이었다.



[그림 12] KBS 시청자 청원 '일회용품 방송 노출 자제'
(3) 온라인 시위를 통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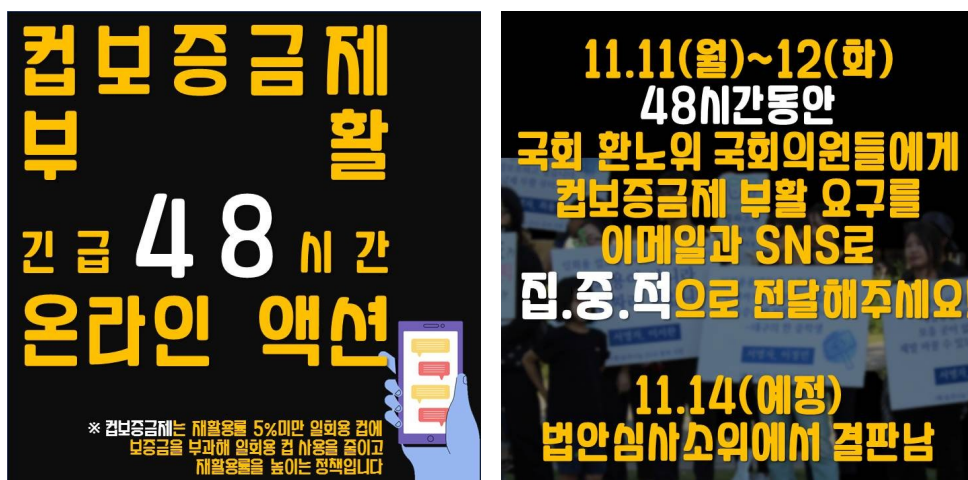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은 2019년 2월 서울환경연합에서 시작됐다. 자원재활용법 일회용품 대상에 종이컵을 포함해야 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감한 ‘쓰레기 덕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회용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플라스틱 컵 어택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림 13] 플라스틱 어택 캠페인 홍보물

참여방법은 서명 편지쓰기&소문내기, 5월 25일 길거리 플라스틱 컵을 수거하는 플라스틱 컵 어택, 일회용 컵 사진 올리기 & 맵핑 등이 있다. 오프라인 활동은 5월, 7월, 9월에도 지속해서 진행됐으며 11월 11일에서 11월 12일 사이에 컵보증금제 부활 긴급 48시간 온라인 액션이 진행됐다.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던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1월 14일 법안 심사에 맞춰 11일간 12일 48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SNS로 컵보증금제 통과를 요청하는 활동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 국회의원 비서실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을 발표했다.

이 활동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국민청원 방식을 넘어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직접 변화를 요청하고 길거리의 쓰레기 문제를 플래시몹 형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문제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여 다시 오프라인의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컵보증금제 부활 48시간 온라인액션 홍보물

(4) 지자체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저지

2019년 12월 25일 ”‘두둥실’ 소망 풍선...동물에겐 ‘죽음의 덫’“이라는 기사를 확인한 커뮤니티 구성원은 대표적 새해행사인 풍선 날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카페에 공유했다, 이에 공감한 구성원들은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분주히 민원을 넣어 소망풍선 날리기 활동을 저지했다. ‘국민신문고’ ‘사용방법을 공유하고 각자의 민원내용을 인증하여 집력을 키워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대전 동구, 대덕구, 홍성군, 여수 등은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행사를 취소했다. 이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사화되었고, 이후

각 지자체에 풍선,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체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실천가들은 2019년 12월 30일 소망풍선 날리기 저지를 기념하고 문제의식 확산을 위해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실천가들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온라인 공동체의 큰 가치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 행동

(1) 환경문제 원인 탐구 및 해결방안 토론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궁금했던 환경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 그리고 다양한 가치관을 학습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지식수준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충돌도 발생한다. 일부는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환경지식을 공유하는 소모임을 형성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전문가 혹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므로 간혹 잘못된 정보로 논쟁이 일어난다.

(2) 내부인을 위한 정보공유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인상적인 문헌, 시청각자료와 지원금 등을 자발적으로 공유한다.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하며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정보는 해당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제품 후기와 안내서를 제공해줌으로써 아직은 제로웨이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실천가들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외부인을 위한 정보생산

구성원들은 더 많은 일반시민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에 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교육 자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의 SNS에 공유된다.

3) 경제 행동

(1)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품 소비

실천가들은 폐기물 저감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을 소비한다. 비닐 포장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꿀랩, 면 마스크 등의 제품을 소비한다. 또한, 기존에 있는 제품(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이 친환경적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여 추가 소비를 막는다. 어류나 육류를 구매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다회용기에 직접 식료품을 담아와 포장재를 줄이는 등의 활동을 한다.

(2)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제품 소비

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른 방안 중 하나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단일 소재 제품, 이외에도 세제를 대신하는 소프넛, 상대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높은 종이로 된 제품을 소비한다.

(3) 제로웨이스트 소비를 위한 특별한 장소 방문

포장재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농부시장 마르쉐@’를 방문한다.¹⁰⁾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생활용품(비누, 수건, 뱃재, 치실, 화장솜 등)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택배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한다. 대표적으로 ‘더 피커’와 ‘지구’가 있다¹¹⁾

(4) 알맹@의 장바구니 대여사업과 세제소분샵

‘알맹@’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제로웨이스트 공동체로 망원시장에서 활동한다. ‘알맹@’은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성원을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알맹@’은 망원시장의 일회용 비닐봉지와 과도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깍뎌기는 말고 알맹이만 주세요”를 의미한다. 주요구성원은 인근 지역주민으로 망원시장에 있는 ‘카페 M’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망원시장 이용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대여하여 비닐봉

10) ‘농부시장 마르쉐@’는 2012년 10월부터 혜화 대학로 예술의 거리에서 ‘돈과 물건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시장’ 대신 ‘사람, 관계, 대화가 있는 시장’을 목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월 2회 시장을 열었다. 2019년 4월 합정, 5월 성수에서 채소시장 모델을 시작했다. 이 장터에서 ‘알맹@’팀과 제로웨이스트 샵 ‘더피커’가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한다.

11) 국내 최초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샵) ‘더 피커(the picker)’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건강한 소비가 만드는 건강한 지구를 테마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한다.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부터 복잡한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직접 용기를 준비해오면 식재료를 무게별로 담아 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있다. 지구를 위한 제로웨이스트샵 ‘지구’는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판매한다.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구매하고 또 공감대가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서도 이 공간을 활용한다.

지 사용량을 줄이고, 시장상인들과 협업하여 과도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에는 세제 소분샵을 열어 용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세제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4) 신체 행동

(1)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지구를 위해 달리는 운동 플로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건강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의 Pick up과 달리기의 Jogging이 합쳐진 단어다. SNS에 #Plogging 혹은 #플로깅 태그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개인 혹은 여럿이서 함께 진행한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미세먼지가 적은 야외활동 적기에 개인별로 혹은 지역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플로깅을 진행한다. 플로깅 모임을 모집하기도 하고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커뮤니티 속 대표적인 플로깅 참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즐거운 인식개선 방법이라 생각하여 플로깅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플로깅은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관심이 적은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제주도 혹은 동해 해수욕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과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 등 다양한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목	
11793	안녕하세요~^^ 플로깅에 관심이 있어 검색하던차에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많이 배우겠습니다~♡ [2]
11288	랜선 플로깅? 📺
11193	오늘 플로깅(쓰레기줍기)은 역동적으로! 🧡📺 [18]
11012	2주동안의 실천:) (1~12번의 실행, 간글주의) 🧡 [47]
10792	아이들과 함께 동네 쓰레기줍기 운동 (aka플로깅) 시작하려고 해요, 팁 부탁드립니다 ~! (후기 있음) [17]
10785	제로웨이스트대구의 플로깅 — 함께해요 🧡 [10]
10771	플로깅 (쓰레기줍기) 일만팔천보 + 가제트팔 장착 🧡 [29]
10384	부산 플로깅(쓰레기줍기) 같이하실분~~~ 🧡 [5]
10343	안녕하세요 환경에 관심이 많고, 제로웨이스트 동참에 많은 도움 받고자 가입했습니 다 ^^ [3]
10118	플로깅의 생활화 [7]
10022	플로깅 후기 ㅂㄷㅂㄷ [14]
9909	지나칠 수 없었던 플로깅 & 셀카(희귀템ㅋ) 🧡 [14]
9466	주말엔 플로깅~ 🧡 [6]
9394	천안에서 플로깅 함께 하실분을 찾습니다. 🧡 [22]
9231	한주 마무리 플로깅! 🧡 [9]

[그림 15] 플로깅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플로깅 후기를 공유하는 글

제 4 절 제로웨이스트의 의미

1. 구성원에게 제로웨이스트란?

1) 문제의식이 바탕이 된 생활양식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로웨이스트란 이벤트성의 활동이 아닌 지속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 폐기물 저감 행위가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자제하기 수준이었다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사회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삶 전반에서 실천한다. 단순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은 제로웨이스트와 유사한 생활양식 중 하나다. 최소한의 물건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는 점에서 제로웨이스트와 유사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가치관과 철학이 부재한 경우가 있어 한 차원 낮은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G: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소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즐거울 수 있는 일은 환경을 위해 포기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행동만 있는 활동?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의 공간을 비우기 그걸 팔아서 돈을 남기기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제로웨이스트가 그거보다는 큰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한 번 쓰고 바로 버려서 쓰레기가 되는게 아니라 내가 구매한거를 지속가능하게 쓰기 때문이죠.

2) 소비자운동이자 사회운동

제로웨이스트가 추구하는 폐기물 저감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과잉 소비와 생산자의 책임 전가 태도다. 초기의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개인 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과잉 소비를 줄이고 기업에 각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확장됐다. 제로웨이스트는 단순히 분리배출을 잘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닌 거시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기업에 책임의 의무를 지게 하는 소비자운동이자 사회운동이다.

L: 애초에 근원적인건는 발생을 시키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생산을 할 때부터 적용시켜야되는 부분이죠? 생산소비 시스템을 바꿔야지 어떤 그런 어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문화적 가치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당위성이 동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소비자만 제로웨이스트를 주장한다고 한들 생산자가 경제적 이유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깐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인 사회 지도층의 마음을 바꿔서 문화를 조성시키는게 필요하죠

2) 로우 웨이스트(low-waste) 사회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성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생활 수준의 실천을 넘어서 온라인을 통해 언론사와 정부에 폐기물 문제 각성을 위한 청원을 신청하고, 기후위기사위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연관 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이 완벽하게 0(zero)의 삶을 살기는 어렵고 한순간의 정책 혹은 산업계, 시민의식의 변화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으로는 로우웨이스트(low-waste)라는 이전보다 폐기물량이 현저히 많이 줄어드는 사회를 추구하고 점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사회에 도달하려 한다. 그들은 장바구니랑 텀블러가 아무렇지 않은 세상,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세상, 시장에서 다회용기에 받아 오는 게 더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오길 바란다.

2.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누구인가?

이 연구에서는 폐기물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폐기물 저감을 실천하는 시민을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로 정의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개인 만족을 위한 일상 실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피력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수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1) 환경에 관심 있는 우리 주변 사람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이 커뮤니티 관계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자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나 스스로를 환경운동가라 지칭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제로웨이스트를 자신의 삶 속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환경운동가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응답했다. 환경운동 참여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운동가의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환경 보전 행동이 소수의 운동가 수준에 그치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의 개인들에게 퍼져감을 시사한다.

2) 폐기물 문제에 한정된 관심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폐기물 문제 인식 이전에 다른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주제의 환경보호 활동(원전반대, 태양광 에너지, 미세먼지 등)참여 빈도가 낮다. 대표적인 이유로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따른 시간 소모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소모가 커진다. 실천가 대부분이 주부, 학생이기 때문에 여타 친환경 행동 실천에 투자할 정신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3. 제로웨이스트 실천가의 시민성

이 연구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을 생태시민의 한 형태로 가정한다. 폐기물 저감이 주요 목적인 제로웨이스트는 현재 초기 단계로 에너지, 원전, 생태계 보호 분야에 적극적인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인식, 참여 과정에서 환경 전반에 대한 우려와 공감능력이 확인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생태 시민성, 에너지 시민성 등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이 가능해 보인다.

1) 비영토성

제로웨이스트 활동은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우리 집, 우리 지역, 한국의 범위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 폐기물의 순환과정과 해양투기, 불법 수출, 매립 등의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정 지리적 공간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다. 개인의 행동반경을 조절하지만, 영향력과 고려의 범위가 내 삶의 반경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비영토성을 획득한다.

2) 비상호적 비대칭적 의무

실천가들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체로서의 폐기물 문제 저감 행동에 나서고 현재보다 미래 시간대의 환경을 위해 실천한다. 구성원 중 대부분이 주부로 파악되며 내 아이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행동한다. 인간의 폐기물 발생 문제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고자 행동하는 모습은 생태 시민성의 비상호적이며 비대칭적 의무에 부합한다.

3) 덕성

실천가들은 정부가 폐기물 저감 목표치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소비규제 혹은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적 동기로 일상생활을 개

선하고 주변인의 참여를 독려하며 자체적으로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여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 연구자는 이를 선의와 정의감 그리고 활동 개척자라는 의무감에서 기인한 행위로 생태 시민성의 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4) 사적 영역의 강조

실천가들은 폐기물 환경문제를 개인의 삶 속의 실천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시민, 교육, 경제, 신체 행동 등 창의적 방식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저감 행동을 전개한다. 특히, 온라인의 발전으로 시민의 정치참여가 수월해짐에 따라 국민청원, KBS 시청자 청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위,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막기 등 다양한 시민 의견 피력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공공에 맡기는 것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천과 여론형성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제 4 장 시민들의 제로웨이스트 실천계기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정체성 논의는 “국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왜’ 등장했는가?”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쓰레기 수거대란’ 발생 이후 생활폐기물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이 등장했으나 시민들은 편의성이 떨어질 뿐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부 프랜차이즈들은 정부와 협력을 맺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 시 할인혜택을 제시하지만 유인책이 미미한 수준이다. 외부적 유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부적 동기로 개인 일상에서 시민 행동까지 적극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등장했다. 이 장에서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일반시민 중 일부가 제로웨이스트를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의 계기를 탐색한다. Hines와 Hungerford(1987)의 환경책임성 행동 모형을 변형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실천가들은 어떤 개인요소를 보유하고 있는지, 무엇이 계기가 되어 폐기물 문제와 제로웨이스트를 인식했고 행동에 참여했으며 또 현재까지 유지 및 강화의 계기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제 1 절 실천 이전의 삶

2018년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대란’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

50%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존재는 극히 일부다. 이 절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선구적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이전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지를 넘어선 고통에 대한 공감

면접대상자들은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 사업가,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종사하며,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제로웨이스트와 폐기물 문제 인식을 묻는 과정에서 다른 존재와의 연결 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다양한 범위의 다른 존재들이 겪을 편익과 고통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E: 아이들 건강이 항상 걱정이에요.

F: 딸 아이에게 최대한 훼손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G: 10년에서 30년 정도 그 시기가 만약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제 나이쯤이 되어서 겪을 고통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L: 특별히 환경에 관심 있었다기 보단 사회 전반에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을 좋아해요. 대학교 시절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라던가 인권쪽에서 활동을 많이했고 환경도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H: 저는 행복에 대한 고민을 오래해왔어요. 너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같아서 아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 고민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인 것 같아요.

M: 저는 지금 나부터라도 잘 실천하다보면 다음세대들이 덜 고통받고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중략) 지금 세대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잖아요.

I: 저는 가슴 떨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제게 있어 가슴 떨림은 아무래도 동물권이더라고요.

위의 내용을 보면 대상자들의 공감 범위는 작게는 나와 가족부터 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소수자 그리고 동식물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주부 혹은 기혼자의 경우 현재 함께 사는 내 가족, 혹은 미래의 내 아이의 건강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1인 가구이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현세대와 나의 인지 수준을 넘어서 불특정한 미래세대의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였다. 또한, 참여관찰과정에서 많은 실천가가 폐기물 문제뿐 아니라 페미니즘, 취약계층 복지, 동물 인권 등 다양한 소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개인의 호기심 충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심을 두게 됐다는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실천가 대부분이 폐기물 문제로 고통받는 타인 혹은 다른 존재의 피해를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가들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범위의 공감능력을 갖추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통제가 가능한 시간과 공간

선행연구 중 양진우와 박해식(2003)의 연구에서 참여 의지의 대표적

저해요인으로 주택유형과 근무 및 결혼 상태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언급됐다. 실제로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분리배출 체계상 다세대주택 혹은 연립주택에 거주할 경우 폐기물을 일괄 수거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또한, 근무 및 결혼 상태로 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규칙에 한계가 존재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면접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가 많았다. 살림을 책임지는 주부 혹은 1인 가구,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다회용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때도 있었다.

특히, ‘D’의 경우 개인 사업으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D’은 업주로서 일회용품을 소비하지 않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D: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로컬푸드 카페인데요. 담아가는 로컬푸드 카페를 하고 있어요. 밀고 있는 말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오세요. 용기를 구하는 용기 자연을 담어드립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일회용품이 제공하는 편의성을 포기하고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기존 방식보다 배의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지속적 일상 변화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경우 참여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면접 대상자들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통제가 가능한 시민일수록 참여가 수월해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3. 환경 문제의식 수용가능성

Hines와 Hungerford(1987)의 개인요소 중 환경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환경 전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는 환경 책임성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실천가들의 실천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기인한 환경 문제의식 수용 가능성을 계기로 선정했다.

면접대상자 중 일부는 꾸준히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들은 채식주의, 동물 인권, 원전반대 등의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환경운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와 대학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한 경험도 존재한다. 또한, 전공에 관련성이 없더라도 환경 관련 대외 활동 혹은 공모전을 통해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경우가 있다.

E: 원래 환경에 관심이 있었어요.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보를 많이 접하기가 어려웠었죠.

D: 옷을 리폼한다던지 가구를 리폼한다던지 이런것들이 되게 재미도 있거니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막연하게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사갈 때 가구와 가전들을 바리바리 끌고가서 힘들게 할까..

I: 채식레스토랑을 운영하다보니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신경쓰이고 자연히 제로웨이스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J: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채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H: 물류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대학에서 폐기물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중략) 환경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불필요한 과재고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폐기가 생기죠.

K: 제가 다닌 대안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환

경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도 많이 배웠어요.

L: 제가 대학교 때 ‘제인구달’이 주최하신 공모전에 제가 참가했어요. (주략) 그 당시에도 테이크 아웃컵이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그거를 화분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 캠퍼스 내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을 화분으로 재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모전 사업을 했었죠.

모든 대상자가 환경문제와 지속적인 접점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제로웨이스트가 지속적 실천을 한 첫 번째 환경보호 활동인 경우도 다수 있었다. 그들은 제3절에서 논하게 되는 인식의 계기를 통해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실천가들이 환경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환경문제를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제 2 절 인식의 계기

이 절에서는 일반시민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에 앞서 폐기물 문제와 제로웨이스트라는 방안을 인식하는 계기를 분석한다. 국내 ‘쓰레기수거대란’과 기존 삶의 방식에서 폐기물 문제를 인지(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앎)하고 있더라도 문제로 인식(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 거주민들이 유사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폐기물 문제의식을 획득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시민들은 극히 일부다. 그렇기에 이 절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계기가 되는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를 탐구한다.

1. 폐기물 문제 인식

면접 대상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8년 4월 ‘쓰레기 수거대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들은 분리배출과정의 혼란과 수거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목격하거나 뉴스를 통해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었고 부정적 감정으로 폐기물 문제를 인식했다.

1) 개인의 직접 체험: 개인이 배출하는 폐기물 배출량 목격

배출장소와 처리장소가 분리되어있는 수도권 거주민들은 폐기물량에 대한 개인의 직접 체험이 문제 인식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개인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에 대해 죄책감을 형성된다. ‘쓰레기 수거대란’ 발생 당시 시민들은 배출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직접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배출시키는 폐기물의 양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경우가 존재한다.

F: 장을 봐올 때마다 쏟아지는 일회용 포장들과 플라스틱 육아용품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위 내용과 같이 ‘쓰레기 수거대란’ 이전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소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경우도

존재했다. 플라스틱 과잉 소비가 생태계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세대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죄책감을 느끼며 폐기물 문제를 인식한 때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노력의 배신: 낮은 실제 재활용 비율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역할을 도맡아왔다.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구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공여감에 행동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폐기물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재활용 비율의 실체를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력의 배신감을 느낌과 동시에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K: 분리수거 비율이 30% 밖에 안된다는 기사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 뒷목 잡히는 느낌? 저 빼고도 다른 분들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줄 아시겠다 싶어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E: 분리수거 사건을 겪고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허탈감을 느꼈어요. 혼란스럽기 까지 했어요.(중략) 애네가 결국 쓰레기가 되니 의미가 없고 배신감이 좀 컸어요..

2017 국민환경인식조사 조사결과 국민이 “지난 한 달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한 행동 “중 ‘쓰레기 분리수거(81.9%)’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 추세는 최근 수년간의 국민환경인식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민들

은 분리배출 과정이 곧 재활용과정이라고 신뢰했으나 뉴스 기사들을 통해 이런 믿음이 깨지게 됐다(김효인, 2018). 많은 실천가가 이 시점에 정부의 거짓 보고에 대한 분노와 노력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유추된다.

3) 언론: 폐기물 문제의 생태계 영향 인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산업 외의 분야에서 폐기물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G: 최초에는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에 충격을 받았어요.

A: 제가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를 사실 처음에 제일 먼저,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 그 때 제 손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여전히 있었어요...그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러니깐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매일 같이 사먹는 그러니깐 매일 하루 한 잔 이상을 사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텀블러도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 속에 그러니깐 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충격이 되게 크게 와 닿았었어요

면접 대상자 중 일부는 ‘쓰레기 수거대란’을 겪으면서 폐기물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뿐 실천과 연계되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폐기물에 대한 사회 관심 증가에 따라 증가한 생태계 문제 기사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최초로 기사화됐지만 2018년에 국내에서 다시 주목받은 ‘빨대가 꽃

힌 바다거북’(박수진, 2018),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조홍섭, 2018), ‘해양 플라스틱 섬’(이영희, 2018) 등의 기사를 통해 인간의 플라스틱 소비가 생태계에 끼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책감과 책임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7]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의 모습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쓰레기 수거대란’을 기점으로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제로웨이스트 오프라인 공동체에 참여한 경우, 포장재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운동’ 개념에서 시작한 예도 있었다. 이 경우들을 통해 폐기물 문제 인식과 참여의 순서가 역전되어도 적극적인 실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제해결 방법의 인식, 제로웨이스트

1) 사회관심 증가에 따른 노출: 우연한 인식

면접 대상자들 모두 제로웨이스트 개념을 최초부터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욕구는 존재했으나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자제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쓰레기 수거대란’을 기점으로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접한 다큐멘터리와 도서, 온라인 콘텐츠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최초로 접하게 된다.

F: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고 있을 때, 비 존슨의 책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접한 후 실천을 시작했다.

G: KBS에서 진행하던 플라스틱 지구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보다 심각한 거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2018년 4월 ‘쓰레기 수거대란’이 휩쓸고 간 한국에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와 플라스틱을 줄이는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들이 등장했다.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수준이 높아졌으며 쓰레기 문제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 ‘쓰레기 수거 대란’이후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관련 다큐멘터리

일시	제목
2019년 4월 10일	다큐 시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2018년 7월 5일	플라스틱 지구 : 1부 플라스틱의 역습

2018년 7월 6일	플라스틱 지구 : 2부 굿바이 플라스틱
2019년 7월 11일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 산
2019년 9월	플라스틱 섬을 찾아서
2020년 3월 20일	한 달 동안 버리는 쓰레기 120kg
2020년 3월 20일	출구 없는 쓰레기 전쟁: 1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2020년 3월 27일	출구 없는 쓰레기 전쟁: 2부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새로운 인류 ‘호모쓰레기쿠스의 탄생’

특히, 2018년과 2019년 방영된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지구’ 등을 시청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의 규모를 인지하게 됐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비 존슨’의 강연 혹은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를 통해 쓰레기 없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했다. 폐기물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문학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접하면서 쓰레기 없는 삶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쓰레기 수거 대란’이후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관련 기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표 6>에는 뉴스 검색 플랫폼인 ‘빅카인즈(BICKinds)’로 ‘플라스틱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재활용’, ‘제로웨이스트’ 등의 키워드 검색으로 52개 언론사에서 연간 몇 건의 기사에서 언급됐는지 정리돼있다.

<표 6> 각 키워드별 언론사 연간 언급량

	플라스틱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재활용	제로웨이스트
2016년	435건	2,650건	18,404건	9,429건	0건
2017년	506건	2,602건	17,452건	8,982건	0건
2018년	2,338건	4,498건	21,157건	12,842건	18건
2019년	3,345건	4,292건	25,401건	13,899건	72건

2020년 ¹²⁾	433건	2,798건	4,984건	3,316건	7건
----------------------	------	--------	--------	--------	----

‘쓰레기 수거대란’과 관계가 있는 키워드 모두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언급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회용’ 키워드의 경우 2020년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사회의 관심으로 인해 언급량이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은 온라인 기사를 통해 쓰레기를 줄여야 할 필요성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계의 노력, 개인의 삶이 조명되면서 제로웨이스트의 필요성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통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관심 증가에 따른 언론과 매체 언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로웨이스트를 인식할 기회가 많아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폐기물 문제를 일정수준 이상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출되었기에 제로웨이스트를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2) 자발적 탐색: 온라인 정보검색 과정에서 발견한 제로웨이스트

일부 면접 대상자들은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라인 탐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해외 제로웨이스트 유튜버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제로웨이스트 홈’,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에 도달했다.

E: 유튜브에서 해외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깐 어? 나도 할 수 있겠

12) 2020년의 경우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작 했어요

D: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왜인지 이런 단톡방이 있을 것 같아서 검색하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A: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없을까 막 찾아보다 보니깐 제로웨이스트를 알게 됐어요

위의 내용과 같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실천 모습과 정보를 보면서 쓰레기 없는 삶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다양한 정보원과 뛰어난 온라인 검색을 바탕으로 관심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온라인 탐색에 너무 의존할 경우 불확실하거나 강조를 위해 데이터의 일부를 생략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학습을 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제 3 절 참여의 계기

이 절에서는 폐기물 문제와 제로웨이스트 방식을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되는 계기를 분석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인으로 작용한 계기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의식을 느낀 미실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폐기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더욱 범용적인 계기를 탐색한다.

1. ‘나’부터

이는 hines와 hungerford(1987)가 주장하는 개인요소 중 통제소재와 연관이 있는 계기다. 개인의 역량으로 외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내부통제 소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로부터의 실천으로 외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일상생활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

E: 예전에는 전부 중국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쓰레기 수출 대란’과 맞물려서 쓰레기는 모든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되겠구나 나라도 변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면접 대상자들은 김희경(2015)의 연구에서 언급된 개인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무력감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고자 참여함을 유추할 수 있다.

2.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움

정호규 외(2018)의 연구에서 언급된 주요한 폐기물 분리배출 요인인 책임감과 dobson(2003)이 제시한 생태 시민성의 조건 중 하나인 정의감이 제로웨이스트 참여를 촉진한다. 실천가들은 폐기물 문제 인식 후 공감대상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참여한다. 자녀, 미래세대,

생태계 등 현세대의 폐기물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참여한다.

F: 딸 아이에게 최대한 훼손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다.

G: 10년에서 30년 정도 그 시기가 만약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가 제 나이쯤이 되어서 겪을 고통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M: 제가 원래부터 비혼주의는 아니었어요.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사회를 살아보니깐 너무 팍팍한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점점 나빠지는 환경은 우리 윗세대가 너무 못해서 지금 너무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부터라도 잘 실천하다보면 다음세대들이 덜 고통받고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중략) 지금 세대가 잘못하면 다음세대가 고통을 받잖아요.

이들은 ‘쓰레기 수거대란’ 과 생태계 전반, 미래세대가 겪을 환경문제의 책임소재를 자신에게 둔다. 사태를 스스로와 독립된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둘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다. 이에 기반을 둔 책임의식과 정의감이 실천가들의 참여계기로 유추된다.

3. ‘나’부터

일부 면접 대상자들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개인의 취미생활과 전문성 강화의 가능성의 방안으로 본다. 단절됐던 대학전공, 직무 경험, 취미생활의 전문성 발휘하여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려 한다.

E: 저는 원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큰 운동에 참여하는건 부담스러워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로웨이스트를 정말 사소한 활동에서부터 시작하는걸 올리기 시작했죠.

F: 제가 원래 아이낳기 전에는 화장품회사 마케팅 팀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보고 더 열심히 홍보했죠.

L: 사실 환경운동을 계속 해나가려는 이유는 전공이 생물학과인데 (중략) 그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을 공부하면서 가져가려는 이유도 있고. (중략) 그런 경력도 버려버리기에 아까우니깐 환경에 커리어를 쌓고 싶은 마음도 있죠.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는 기존의 dobson(2003)의 생태 시민성 중 덕성과는 다른 개인 중심적 사고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개인의 역량 활용의 계기는 활동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높인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제로웨이스트 실천행위는 향후보다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유지와 강화의 계기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실천가가 주변인에게 “너 하나 바뀐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차피 중국 때문이야.”, “좀 편하게 살자!” 등의 의견을 들은 경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제로웨이스트 활동은 특별한 날의 독특한 체험 활동이 아닌 생활양식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외부인들(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과 의견 충돌

이 찾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활동 참여 이후 어떻게 활동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탐색했다. 실천가들은 제로웨이스트 행위와 커뮤니티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폐기물 문제와 제로웨이스트 인식 개선에 이바지한다.

1. 온라인과 공동체: 혼자가 아닌 우리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지속 가능한 활동의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재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넘어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다. 구성원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국민청원, 빨대 어택, 플러깅 등)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효능감이 향상되고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타인과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구성원들은 게시글의 답글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브 댓글과 좋아요 등의 방법으로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환경보호 의지와 결속력을 다진다. 공동체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감대의 공유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소속감을 느끼고 활동에 애착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최초에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활동이었다면 ‘함께’ 활동하면서 제로웨이스트 활동 자체와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F: 혼자서 실천하다보면 ‘내가 이런다고 달라지나?’하는 무력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동력을 받게 된다

D: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런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흐뭇하고 그랬어요.

L: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환경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으로는 확산과 공유의 한계가 존재하는 활동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목격한다. 동시다발적인 국민청원, KBS 시청자 청원, 지역구 민원, 뿔대어택 등의 활동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연결감을 체험하고 개인보다 큰 공동체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실천가들은 공동체 활동과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과 서로와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C: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KBS 시민 청원이었어요. 사실 KBS 청원이 일반 국민청원보다 많이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청원 마지막 날까지 청원 인수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해보자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공유했더니 하루 만에 수백명이 청원해서 목표했던 천명을 달성했죠. 저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2. 사회의 인정

1) 자기효능감¹³⁾

면접 대상자들 대부분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내부에서 인지도가 있

13) 이 연구에서는 Bandura(1991)가 정의한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적용한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잘 완료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다.

는 인물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대부분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실천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때 성취에 따른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며 활동 유지 원동력이 된다고 응답했다. 대표적으로 주변 인물의 변화, 사회의 인정, 노력에 대한 칭찬을 통해 옳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보다는 주변 인물 특히 가족과 지인의 변화를 확인할 때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은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E: 시어머니 역시도 굉장히 자기주장이 세신 분이거든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연세 있는 분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엄청난 위생관념에 의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게 통했던 거더라고요

M: 저희 엄마가 자주 가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엄마한테 딸이 그런 활동하는데 비닐봉지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닐봉지를 쓰는 엄마가 야속하기도 하면서 상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A: 댓글들을 봤을 때 저는 되게 기뻐어요. 너무 기뻐어요. (중략) 누군가 보고 공감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략) 점점 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좀 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댓글에 누가 질문하면 그걸 막 제가 찾고 있고, 저도 모르니깐 막 찾아보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K: 제가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멘토님들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투자도 해주시고 또 여기저기 대기업 행사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2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됐어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도 제로웨이스트 강연, 활동가 인터뷰, 청원 성공, 폐기물 기사를 통해 실천가들은 폐기물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는 대리 성취감을 체감한다. 이를 통해 실천가들은 활동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직간접적인 성취감을 획득하며 환경보호 의지와 실천 강화에 크게 이바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G: 그전에는 내가 유난을 떠는 건가?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가?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돼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돼요. (중략)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게 아 그래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중략) 덕분에 연대에도 초청강연을 다녀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네요.

C: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뭐가 될까? 싶었어요. (중략)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답을 알아요.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끔찍한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 봐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2) 스트레스 해소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다회용품 혹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실천가들은 이전보다 배에 달하는 시간을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소비해야 한다. 양진우와 박해식(2003)의 연구에서 이런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대표적 저해요인으로 꼽혔으나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에게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지된다. 과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과소비에서 느껴

지던 공허감이 제로웨이스트 실천과정을 통해 진정됐다는 응답이 있었다.

J: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소비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는데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다 보니깐 아무래도 소비도 줄었어요. (중략)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소비를 통해서 너무 빠르게 즐거움을 얻고 소비해서 오히려 공허했던 것 같아요. 이거 활동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오히려 소비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어요.

G: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중략) 내가 하는 일에 떳떳하고 당당하니깐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활동에 집중하기 쉬워지더라고요.

위의 내용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행위를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 속 지속적 참여가 요구되는 제로웨이스트는 실천가에게 있어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폐기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의 실천행위다. 실천가들은 실천을 통해 보람을 느낌으로서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향상을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 긍정적 감정의 전이: 커뮤니티에서 제로웨이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 감정은 제로웨이스트 유지 및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개인 생활 습관 전환부터 외부에 저항하는 활동 수행과정에서 외부와 충돌, 갈등, 좌절을 겪는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 감정으로 승화시킨다. 이들은 커뮤니티에서 문제의식의 공유,

정보 탐색, 타인과의 소통, 공동체의 성장을 통해 커뮤니티에 애착이 형성된다. 특히, 구성원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가진 주체로 활동하면서 일부는 커뮤니티와 개인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커뮤니티의 긍정적 경험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제로웨이스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지속해서 창의적인 제로웨이스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성장과 동시에 제로웨이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간다.

4. 선구자적 의무감

제로웨이스트는 2018년 이후 국내 실천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폐기물 문제의식이 퍼져가나 제로웨이스트 실천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미미하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면접 대상자들은 초기 실천가로서 정보 확산 의무감을 가진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내 제로웨이스트에서 인지도 있는 ‘알맹’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캠페인과 활동들이 한국의 과잉소비를 줄이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L: 우리가 하는 활동은 어떤 변화에서는 항상 시발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나가잖아요? 저는 방아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망원시장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드는 시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활성화가 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제로웨이스트가 좀 알려지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서는 근력 행동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5 절 소결

국내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으나 제로웨이스트 개념이 정착되기 전 스스로를 제로웨이스트라고 정의하는 초기 실천가들이 있다. 그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관찰을 통해 실천 이전의 삶과 실천의 계기 탐색을 위해 인식, 참여, 유지 강화 단계로 구분 지어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그림 17]에 정리됐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실천 이전의 삶 속에서 공감능력, 통제력, 환경문제 수용성의 특징을 보유한다. 이런 개인의 특징은 이후 폐기물 문제를 인식, 참여, 유지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 공감의 범위가 넓은 경우 같은 사회적 폐기물 이슈에 노출되더라도 죄책감, 배신감, 책임의식 등으로 폭넓게 폐기물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쓰레기 수거대란’으로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생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의 폐기물 피해자를 학습할 수 있었다. 이후 환경에 대한 기존 경험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경험은 제로웨이스트를 인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를 인식하고 한 단계 나아가 해결의 의지와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은 기존 환경단체 활동, 환경과제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경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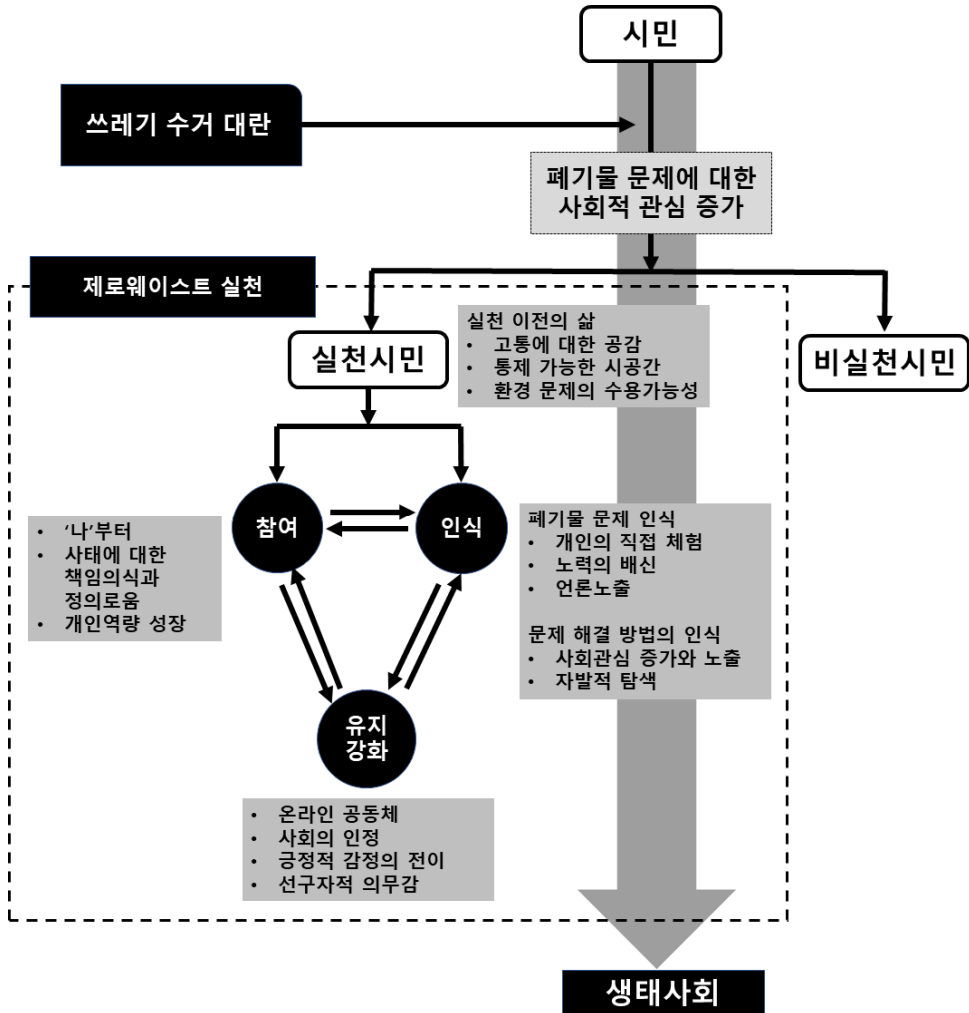
공감능력과 시간과 공간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개인의 상황적 특징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 공감을 통해 체감한 죄책감, 배신감, 책임의식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벗어나거나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는 정의감과 책임감,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참여한다. 인식과 참여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면접 대상자 중 일부는 우연한 계기로 행위에 참여 후 문제를 인식하게 된 예도 있었기에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덕성의 실천이 제로웨이스트 참여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주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는 앞의 두 요소가 정성적인 요소들이었다면 물리적인 실천으로 유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가치관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편의성으로 가득 찬 외부세계에서 고립되고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유지와 강화의 계기는 개인의 특징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유지와 강화에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단체가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을 단체와 동일시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긍정적 감정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제로웨이스트에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쓰레기 수거대란’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최초 커뮤니티들은 지속해서 집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에 애착을 두고 주목을 통해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각 계기의 분석 결과는 위와 같다. 그러나 모든 단계가 한 방향은 아니다. 인식과 참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인식이 참여에 참여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유지 강화와 참여 혹은 인식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자가 만난 면접 대상자가 커뮤니티 구성원 중 주요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실천가들의 모습이 었다. 소극적 실천가들의 성향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 다.



[그림 17] 분석 결과 정리

제 5 장 결론

2018년 4월에 발생한 ‘쓰레기 수거대란’은 사회에 폐기물 문제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사건을 통해 일부 시민은 그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연구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생태시민의 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들을 생태시민으로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보여주는 제로웨이스트 실천방식과 가치관은 자신의 삶을 넘어선 경계 없는 폐기물 문제를 염려한다는 점에서 생태시민의 비영역성을 획득한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비상호적이고 비대칭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셋째, 정의감, 책임감이 주요동기로 작동하면서 덕성을 확보한다. 넷째, 폐기물 문제라는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생활실천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의 강조를 확보한다. 그러나 폐기물 문제에 관심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태(Ecological)시민이라고 완전히 정의 내리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 내부에서도 더 많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다양한 기존실천가들(채식주의, 동물 인권, 에코페미니스트 등)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참여함에 따라 고려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향후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생태시민으로의 성장 과정에 위치한 존재 이해할 수 있다.

외부적 통제와 유인책 없이 내부적 동기로 폐기물 저감 행동을 실천

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인식, 참여, 유지 강화 단계를 오가며 실천한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주요 계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적 계기에서 보자면, 덕성, 통제 가능한 시간과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적 인정이다. 같은 사회적 계기에 노출되더라도 실천과 참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는 선행의 의지. 즉 ‘덕성’이 행동 참여와 유지,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로웨이스트는 기존 사회양식에 반하는 사회운동이자 생활양식이다. 그렇기에 덕성이 기반이 되어 외부와 독립된 개인이 통제 가능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할 때 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참여의 한계에 부딪혀 유지와 강화에 한계가 발생한다.

공동체의 참여와 강화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국내 제로웨이스트 실천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면접 대상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구성원들은 정보 공유, 일상 소통을 넘어서 하나의 가치공동체로 존재한다. 국민청원, 교육, 플러깅 구성원 모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서 공동체에 애착을 형성한다. 몇몇 활동은 사회의 주목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인정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획득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실천시민으로 변화한다.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의 단계는 한 방향이 아니며 상호보완적이다. 다만 전체 시민 중 극히 일부만이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독립적 문화 형성으로 인해 신규 참여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소수에 불과한 제로웨이스트 실천시민이 아닌 비실천 시민들을 어떻게 폐기물 저감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어

떻게 그들의 일상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은 향후 자원 순환사회의 시민 확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실천시민의 계기에 집중한 연구로 비실천시민의 변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천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초 연결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가치관을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코로나 19 사태로 향후 일상의 온라인화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결집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의 자정활동을 통해 신규 유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수준의 온라인 정보를 확산시킴으로써 신규 참여자들에게 부담 없는 정보 접근의 수단이자 참여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행위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는 모두가 동일한 상황적 맥락에서 우연히 서적과 다큐멘터리를 접하거나 행동에 참여했을 때만 제로웨이스트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폐기물 문제는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폐기물 문제를 공유하는 방안과 더불어 해결방안의 긍정적인 면모를 교육해야 한다. 긍정적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교육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천의 과정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선구자적 실천가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대부분 환경운동과 접점이 적은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환경운동의 주체는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였는데 비해 제로웨이스트 운동 참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환경과 연결점이 적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본인을 운동가라고 지칭하지 않으며 실생활 수준의 실천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환경운동의 실생활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는 더는 정부, 기업, 환경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금씩이지만 보다 큰 방향에서 우리 모두의 참여가 절실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는 다른 주체들이 변화해나가는 과정을 이 연구에서 확인했고 한국 시민사회에 환경문제의 대중화 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최초의 국내 제로웨이스트 시민활동 분석연구로서 탐색적 의의가 있지만 깊이에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국내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퍼져감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각도의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로웨이스트 활동의 대표성을 띄는 인물들이나 전체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편향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학적 연구를 통해 구성원 전체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서울: 범문사.
- 김병연(2011), “생태 시민성 논의의 지리와 환경 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구 지리환경교육)」, 19(2): 221-234.
- 김희경(2015), 「한국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 및 교육적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 _____(2018), “우리나라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 「환경교육」, 31(1): 23-34.
- 김희진·김창석·남영숙(2015), “고등학생들의 분리배출 방해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101-105.
- 박순열(2010),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67-194.
- 박희제·허주영(2008), “친환경행동의 결정요인과 구조“, 「환경정책」, 18(1): 1-26.
- 양진우·박해식(2003), “경로분석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인과구조분석: 부산지역을 사례로“, 「국토계획」, 38(3): 233-244.
- 오해섭·김성수(1998), “청소년의 환경 책임성 행동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0(3): 113-123.
- 유두련·김년희(2012), “친환경소비행동 집단 간 내적동기, 외적동기와 환경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151-166.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기춘(Eds.)(1995), 「소비자학의 이해」, 서울: 학현사
- 이양수(2009), “친환경 행동의 근원과 경로 분석“, 「한국행정논집」, 21(3):

1067-1081

- 이용기·최정구·김민성(2010), “환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대한 정서의 매개역할”, 「경영학연구」, 39(5): 1177-1198
- 이정권·최영(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1): 115-148.
- 이종규(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선(2018), 「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균등화를 위한 연구」, 서울: 환경부
- 입소스 코리아(2019). “지구의날: 환경문제 글로벌 조사”. 「입소스 코리아 이슈리포트」, 41:()
- 정효규·남영숙(2018), “개인의 분리배출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33-38.
- 조항제·김영찬·이기형(2015), 「미디어 문화 연구의 질적 방법론」, 컬서울: 컬처룩
- 최병선(2006), ”정책사례 연구 다시 보기-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국정책학회보」, 15(1): 171-198.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9), ”2018 국민환경의식조사“, 「KEI 포커스」, 7(8):
- _____(2018),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 「KEI 포커스」, 6(3):
- 한국환경공단(2018), 「2018년도 기준 폐기물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_____(2018), 「2018년 1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
- _____(2018), 「2018년 2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
- _____(2018), 「2018년 3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결과」.
- 홍수열(2018),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2018년 ‘쓰레기 대란’“, 「세계와 도시」, 23(1): 18-26.
- 환경부(201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2019),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 해외문헌

- Bandura. A. (1991). “ Self-regulation of Motivation Through Anticipatory and Self-regulatory Mechanisms.” In R. A. Dienstbier(Ed.).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 ' 69-16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ck, U., Lash, S., & Wynne, B.(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 Binnemans, K., Jones, P. T., Blanpain, B., Van Gerven, T., & Pontikes, Y. (2015). Towards zero-waste valorisation of rare-earth-containing industrial process residu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99, 17-38.
- Bogdan, C, R, & Biklen, D, S, (1982), 교육연구의 새 접근, 신옥순(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Dobson, A.(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OUP Oxford.
- Dobson, A. (2006). Ecological citizenship: A defence. *Environmental Politics*, 15(03), 447-451.
- Greyson, J. (2007). An economic instrument for zero waste,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5(13-14), 1382-1390.
- Hannon, J., & Zaman, A. U. (2018). Exploring the phenomenon of zero waste and future cities. *Urban Science*, 2(3), 90.
- Hines, J. M., Hungerford, H. R., & Tomera, A. N.(1987), "Analysis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18(2): 1-8.
- Schwandt, T. A(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Smith-Sebasto, N. J., & D'Costa, A.(1995), "Designing a Likert-type scale to predic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undergraduate students: A multistep process",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7(1): 14-20.
- Song, Qingbin, Jinhui Li, and Xianlai Zeng(2015), "Minimizing the Increasing Solid Waste through Zero Waste Strateg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4 (2015): 199-210. Web.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Participant Observation.
- Stake, R. E.(2008), Qualitative case studies.
- Zaman, A. U., & Lehmann, S. (2013). The zero waste index: a performance measurement tool for waste management systems in a 'zero waste c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0, 123-132.
- Zaman, A. U., & Lehmann, S. (2011). Urban growth and waste management optimization towards 'zero waste city'. *City, Culture and Society*, 2(4), 177-187.

3. 인터넷 자료

- 그린피스 보도자료(2018.12.10.),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 현장 '충격」,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5367/pressrelease-illegal-plastic-waste-philippines/>
- 통계청 보도자료(2018.12.13.),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2006
- 환경부 보도자료(2017.09.18).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 대폭 강화...제도 개선 추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

boardId=815620&menuId=286

_____(2018.04.01).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69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8521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

_____(2018.05.10).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862300>

_____(2018.05.18). 「국민은 알기 쉽고 재활용은 잘 되고…분리배출 안내서 나온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64360&menuId=286%20target=>

_____(2018.05.24.). 「커피점문점 1회용품 줄이기 앞장선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8656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_____(2018.12.31.).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4&boardMasterId=108&boardId=932790>

_____(2019.01.16.).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935250&menuId=286>

_____(2019.02.21.). 「불법폐기물 40%이상 연내 처리 추진」,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g4nhx4c>

J9KEAgsvxRDFohy+6.mehome2?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94024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4. 인터넷 기사

구은서, “한국, 폐플라스틱 ‘수입 대국’ 됐다”, <한국경제> 2019.04.2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234803i>

김미경,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슬픈 ‘귀향’” <그린피스>, 2019.02.07.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6930/blog-plastic-plastic-waste-back-in-korea/>

김정석, “10m 치솟은 ‘의성 쓰레기산’...그 뒤엔 ‘t당 10만원’의 탐욕” <중앙일보> 2019.07.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30063>

김효인, “분리수거 24년... 재활용 반도 못한 ‘헛수거’“, <조선일보> 2018.05.07.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7/2018050700128.html

류지일, “서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용역 톤당 19만 5000원 입찰” <충청신문>, 2018.01.24.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194>

박수진, “지금 세계가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고자 하는 이유“, <한겨레> 2018.06.0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47921.html

송승화, “페비닐·페트병 쓰레기 수거 대란 종료”, <서울일보> 2018.04.20.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609>

이영희, “치명적 ‘미세 플라스틱’ 공포…韓 면적 15배 쓰레기 섬”, <중앙일보> 2018.04.0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5397>

유하영, “[현장] 테이프·끈 금지 첫날, 대형마트 자유포장대 가보니“, <비즈니스한국>, 2020.01.02.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223>

조홍섭, “플라스틱 먹고 죽은 고래...뱃속에 쓰레기 29kg 있었다“, <한겨레> 2018.04.11.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40062.html

최가영, “의성군 ‘쓰레기 산’을 아시나요? 연이은 화재에 주민 분통 ”고발장 접수”” <YTN> 2019.01.04.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41135067741

천권필, “[단독] 중국길 막힌 폐플라스틱…이젠 한국으로 몰려온다“. <중앙일보> 2018.04.03., <https://news.joins.com/article/22503849>

Abstract

Why do citizens take action to solve the Korean waste problem?

A case study of the actors
in the Korean Zero Waste movement

HAEUN NOH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Master Cours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April first, 2018, ‘garbage collection crisis’ which recycling companies refused to collect vinyl, mainly in apartment complex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was caused by poor recycling market structure, the government’s inadequate response, massive domestic waste emissions, and China’s new policy which ban of importing solid waste at 2017. Since this accident, the awareness of waste problems has increased in society, and government and companies have begun to propose ways to reduce waste generation and increase recycling rates for fundamental solution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ducing plastic, which has a convenience as strong weapon,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 choice and the transfer of responsibility. Under these circumstances, actors who named themselves as Zero Waste without external incentives and who are forming a community have emerged. Beyond waste separation and living standards to reduc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various applications are being made online for petitions to awaken waste problems, participate in climate crisis protests, produce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or develop related businesses.

The researcher assumes that since ‘garbage collection crisis’ some of citizens have developed into a form of ecological citizens called Zero Waste actors. Our society with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needs more ecological citizens to respond multilayered.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 acting reason for Zero Waste actors who experienced the same accident with nonactors to figure out the main triggers of environmental movement spreading. So, this study’s question is “Why are a Zero Waste actors acting to solve domestic waste problems?”.

This study has an exploratory significance because there is no prior study in Korea. Thus, case studi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are applied to focus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struments rather than on the general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se. The data collection method consists of literature research,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To form the analysis frame, the researcher explores Zero Waste,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ehaviors, and discussion of online communities. The temporal scope of this study has been since 2018 when the ‘garbage collection crisis’ occurred, and the spatial scope is two representative Zero Waste online communities.

Chapter 3 explores the process of the domestic ‘garbage collection crisis’ and the domestic Zero Waste activities triggered thereafter. Among the six types of behavior presented in the model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ehavior models, activities were classified based on civil behavior, educational behavior, economic behavior and physical behavior.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the actor suggest a self-definition of Zero Waste meaning.

Chapter 4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action of Zero waste with internal motivation without external control. Analysed by dividing them into recognition, participation,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The recognition phase is divided into the recognition of waste problems and the recognition of Zero Waste as a solution. Each process is not one-way, but complementary. Typical reasons have emerged as a virtue, a controllable time and space, an online community, and social recogni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ways for the participate of non-acting citizens, the educational of the positive view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online commun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explore the waste issue concentrated in the perspective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the main agent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past were civic group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but Zero Waste confirmed the spread of environmental movements in real-life, because most of the actors have little social and economic connections with the environment.

The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is the first analytical study on the momentum of the Zero Waste actors in Korea, but there are limitations of in-depth analysis due to the absence of prior studies. Seco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in-depth interviewees, who are representative members, are a very small part of all members.

keywords : Zerowaste, Waste solution, Ecological citizen, Citizen participation, Case study,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ehavior
Student Number : 2018-21497